

스위스 은행 직장생활 종료

스위스 직장생활

2025/03/15 09:00

<http://blog.naver.com/imyourbest/223793242479>

최초에 계약한대로 2024년 12월 31일자로
스위스 은행과의 채용계약이 종료되었다.

라고만 쓸거면 내가 포스팅을 쓰지 않겠지.

그 사이에 엄청난 과정들이
(생각지도 않게) 있었다.

난 6-7월쯤 이미 한국에 돌아갈까하며
대략적으로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 회사에서 장기계약 종료를
2025년 1월로 설정했고,
그 이후 더이상 연장불가임을 통보받았다.

계약종료 3개월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9월.
직속상사 J가 나에게 계약종료 후의
행보에 대해 질문하면서
모든 계획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J는 나에게 졸업예상 시점, 향후계획,
스위스 계속 거주 여부 등등을 물어보더니
계약연장과 풀타임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스위스 은행측에서도 전부 내가
한국에 정규직이 있다는걸 잘 알고 있고,
한국에 돌아가는 것도 깊게 생각중이라는걸
이미 J에게 말한바 있었다.

(다른 얘기지만, 우리 나라 회사들과 달리
겸직에 대한 규정 같은거 없어서 좋다ㅋㅋ)

J는 재계약을 하려면
work permit 진행 소요기간을 고려해서
내 쪽에서 원하는지 아닌지 빨리 답변을
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J에게 만약에 내가 정규직을 원한다면
난 Non-EU기 때문에 진행 소요기간에 대한
문제보다 되느냐 안되느냐가 더 큰 문제이다,
얼마나 많은 Non-EU 친구들이 비자가
거절나거나 회사가 포기하거나 하는
miserable한 경우를 봤는지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를 해주었고 J도 이해했다.
인사부랑 먼저 얘기를 해보기로 했다

인사팀장에게 Non-EU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례가 있는지, 어떤식으로
비자문제를 해결했는지 물었다.

인사부가 다행히 말을 빙 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Non-EU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례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실제로 매우 희박하여 뽑은
아주 특수직빼고는 전혀 경험이 없으며,
회사에서 해당 직군에 이 Non-EU를
채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근거를 요목조목
잘 써서 노동청에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거절되는걸로 알고 있다, 굉장히 힘들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었다.
오히려 고마웠다. 그게 현실인거니까.

물론 그럼에도 내가 되지 않을 이유 또한
당연히 없다. 시도는 해볼만 하다.

J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자기네 쪽에서 왜 자기네들이
내가 꼭 필요한지 다 상세히 적을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어떤 문서를 적으라고 해도 다 적어서
제출할테니 그 문제는 신경쓰지 말라고 했다.
(여기서 1차 울뻔함?)

물론 문서를 아주 휘황찬란하게 쓴다고해서
된다는 보장없다. 거절된 케이스만 정말
오조오억명을 봐왔다ㅋ
(솔직히 많은 데이터를 본 입장에서는,
쌩짜로 석사한 경력없는 신입 또는 2년 미만의 경력자는
그냥 99% 확률로 안될거라고 생각함... 물론 1%가 존재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초코빵은 회사와 계약을 계속하고 싶은데

현실이 극복하기 어려워서 그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는 또 다른 면의 큰고민이 있었다.

바로 그 회사 자체.
내가 '이' 회사를 다니고 싶은가?
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다.

같이 일한 사람들은 다 너무 좋았다.
(아직도 다 연락하고 지낸다 ㅋ)
그런데 회사를 봤을때는
내가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올드한 시스템과 변화를 못받아들이는 경영진들.
몇달 일하지도 않은 내가 답답함을 느낄정도면
정규직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아 잘못 선택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았고,
모든 팀원들 또한 내 생각에 동의했다.

그래서 그들도 나를 생각해서라도 무작정
정규직하라고 들이밀수가 없었다.
A는 나에게 넌 똑똑한데 이 회사는
너에게 도움이 안되는 곳이다... 라고 했다.
(물론 이 때문에 또한 답답한 상황에서
어떻게 개척해야하는지까지 약간 배운 장점은 있다.
항상 말하지만, 버려지는 경험은 없다 ㅋ)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력서에는
멋드러지게 스위스 은행에서
데이터사이언티스트로 일!함!!! 하고 쓰면
나중에 다른 곳 취업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 바로 이곳에서 일하려고
막 그렇게 permit을 아등바등 해야할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물론 회사의 시스템이 별로면
아주 좋은 회사들을 지원해서 가면 되는데,
또 난 그 정도까지는 능력은 안되니까.
(이미 우리회사도 취리히에서는 모르는 사람 없더라고...
그럼 그 위는... 아주 좋은 회사들 한줌만 남게되지 않나)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져서인지 넘나 다 귀찮아서
여기서 일하면서 정말 단 한군데도
이력서를 제출한 곳이 없었다ㅋㅎ
(링크드인도 너무 안해서 1촌 6명있었음ㅋㅋㅋ)
스위스 구직에 뜻이 있다면 이러면 안됩니다...!)

팀장N은 신규팀장이라 9월부터 나를 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애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그런데 10월에 내가 C-level 경영진들에게
NLP/AI 프레젠테이션하는 자리에 참여한 후
굉장히 좋아하더니 나에게 개인면담을 요청했다.

프레젠테이션 정말 잘하더라. 솔루션들도 좋다.
영어 당연히 최상급인거 알고,
C-level들과 커뮤니케이션도 좋더라.
프로젝트를 계속 같이 하면 좋겠다 하면서
N 또한 계약연장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동시에 N은 솔직히 말해서
NLP data scientist 풀타임 채용을 할
예산은 배정받지 못했다고 했다.

N이 나한테 질문한 건 두가지였다.

당신이 스위스에 머물기 위해서 회사가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이 회사와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커서
계속 일을 하고 싶은건가요?

그리고 나는 솔직하게
스위스에 머물기 위해서 회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항상 솔직할 필요는 없는데,
내 성향이 매번 어쩔수 없이 이렇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혹시 1년 계약연장을 하면 의향이 있나요?
2025년 말까지요.
대답주시면 C레벨에 보고할게요.

음... 솔직히, 아뇨. 없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면 불안할 것 같아요.

물론 어디나 계약직군 엄청 널려있고
먼저 제의해주는것도 감사한 일이라는거
정말! 정말!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걸 도약삼아 더 좋은 곳 갈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이미 한국회사 데드라인이
있어서 그런지 불안정한 쪽에
중심축을 두기가 상당히 쉽지 않더라.

이 면담을 한 후에 J가 면담 어떻게 됐냐고
물어봐서 이야기해줬는데.....
J가 나에게 너 정말 스위스에 머물기 위해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어? 진짜야?
왜 그랬어? 갑자기 눈을 부라리면서
거의 화를 낼것 같은 표정을 지어서
진짜 깜짝 놀랐다. 그 표정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한번도 본 적이 없다.
J는 뭔가 어렵지만 어떻게든 애를 정규직으로
만들어보자 하고 나랑 같은 배에 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저말로
배신한것처럼 생각이 들었던건지...
이때 너무 죄송해서 상황이 또렷이 다 기억난다.

J는 그 후에도 여러번 다시 물었다.
졸업 후 1년 계약연장 시
회사와 거주가 묶이게되니 불안한거면,
혹시 학생신분을 계속 늘리면 안되냐고 했다.
(학생신분으로 거주 + 회사 계약은 따로이므로)
그러더니 나한테 혹시 지금 쓰는 논문을
그냥 폐일할 수 없겠냐고 물어봄(????)

"아니 무슨 상사가 뭐 이래요.
직원한테 논문을 폐일하라고 하는
상사가 어딨어요 ㅠㅠ"

"아니 오해하지마. 그... 그러니까,
폐일해도 또 할 수 있거든..."

"아닐 ㅋ 뭐래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ㅠㅠ
논문 폐일하라고 하는 사람 처음봤네 진짜"

나는 빵터졌지만 상사는 진지했음 ㅋㅋㅋ
아 ㅠㅠ 자기 딴에는 나를 유지할 이런저런
가능성들을 다 생각해본건 알겠는데,
그냥 저 말이 너무 웃김
논문 폐일하면 안되내 ㅋㅋㅋㅋㅋ
자기는 PhD까지 해놓고
나한테는 석사논문 폐일하라 하고 ㅋㅋㅋㅋ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시기에 J랑

정말 많은 개인적인 대화를 했다.

J 덕분에 나도 많이 오픈하고

항상 솔직하고 편하게 있을 수 있어서

나의 인복이었다고 본다.

내가 J에게 유학생들이 회사 취업해보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 허다하니까

내 포지션 유지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꼭! 주라고 몇번이나 이야기를 했다.

(왜냐면 상사 중에 F가 내 업무를

자꾸 재밌어보인다면서 눈독들이고 있어서...

모르는 사람 욕심부리는거 따라가지 말고

방금 배워서 나온 따끈한 학생들 기회 주라고 했음.

하지만 일단 인수인계는 해야하니까 F에게 하긴함.)

나중에 내가 한국행을 최종 결정하고

팀원들에게 얘기한건 11월 말쯤부터였다.

사실 그 전에도 팀원들이 많이 물어봤었는데

내가 아직도 결정못하고 어물쩡거리는 바람에

제대로 답변을 못한 것... ㅋ ㅎ

상사 D가 너무 아쉬워하길래

"더 똑똑한 친구들 많아요, 지원자는 넘쳐요!"

했더니 하는 말이

"그래 그럴수도 있지. 그런데 팀에게

맞는 사람을 고른다는게 제일 어려운거라는거

아니? 난 니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진짜 또 울뻔함.

트램이었는데 왜 그냐 종말 ㅋ

옆팀에 리스크 팀장님K는
나한테 3번이나 찾아오셨다.
물음표 살인마였음...
왜 그만두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건강인지? 가족인지? 행정절차상 자기가
도울게 혹시 없는지? 다음스텝을 얘기해줄수있는지?
마지막에 오셨을때는
정말 생각을 바꿔줬으면, 다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까지 말씀하셔서
아니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면서
정말 죄송하고 심란했다.

그리고 모바일팀 팀장님V도 찾아오셔서
(나보다 더 솔직하신 편ㅋㅋㅋㅋ)
일하는 척만하고 뺑이치고 미팅만 쓸데없이
오지게잡고 하는 직원들 허다한데
전임자가 없는 신규 포지션 채용자가
몇개월만에 이렇게 바로 결과물이 나오고
바로 프레젠테이션 잡아서 피드백받고 개선하고
이런 직원이 맨날 그만둔다면서
자기는 아주 답답해죽겠다고 이 회사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거 같다고
갑자기 엄청 빽쳐하셨다ㅋㅋㅋㅋㅋㅋ
아니아니 제가 안한다고 했어요 했더니
그래도 똑같다고 회사가 아주 좋은 조건에
딱 못가게 했으면 님이 안한다고 했겠냐고
물론 회사 시스템 상태가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오히려 나서서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이래야되는걸 그냥 관두도록 보고 있으니
멍청하다고 계속 화를 내심ㅋㅋㅋㅋㅋㅋ

맨처음 입사했을때는 대체 뭘 해야하나...
했던 나였는데 이제는 다들 할게 산더미인데
어디가냐고 붙잡는게 특이한 기분이 들었다.

(역시 아시아인은 일을 잘해서 다들 좋아해)

다른 데드라인이 없었으면
다른 결정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인생이 다 그런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한국회사가 훨씬 좋고
그런것도 절대 아니다. 그냥 그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한 것일뿐이다.
뭐든지 착착 잘 맞으면 좋은거고
아님 되는대로 하는것이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자체는
상황이 바뀌어도 어디 가지 않으니까.
또 여기 있어보다가 뭔가 엉?이 누적되면
또 다른 선택을 하면 되는거고.

대기업 7년 직장인&휴직러,
스위스 취리히대학교 NLP 석사졸업.
하루의 1/3은 춤에 열정을 쏟고 있고,
나머지 1/3은 인생계획하기를 즐깁니다.
@ UZH @ Kpop Dancer @Daze Crew
유튜브 youtube.com/@imyourbest
김치퐁듀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imchi_fondue
유학상담 blog.naver.com/imyourbest/222060601671

스위스 은행 구내식당

스위스 직장생활

2025/01/30 17:00

<http://blog.naver.com/imyourbest/223741171410>

스위스 은행 구내식당 모음집 ㅋ

구내식당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보니

제대로 촬영을 못했다... ㅋ

섹션이 5가지 정도인데,

meat buffet, veggie buffet, salad buffet,

warm buffet, dessert buffet 그리고

그 날의 meal 2종류가 있다.

각 뷔페에는 10~15가지 종류의 음식이 나온다.

디저트(과일이나 케잌류) 또는 스프 중 택1해서

무료 제공이고, 고기 뷔페만 담았을 경우에는

샐러드 뷔페는 무료 제공이다.

아래 영상은 수줍어서 2개의 섹션만 촬영됨 ㅋ

나는 정말 특색있는 meal이 아닌 이상은

항상 뷔페만 갔다. meal은 9.5프랑인데,

뷔페는 주로 6프랑정도 나와서 그런것도 있지만,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걸 좋아해서 ㅋ

그리고 주로 저녁 먹을것 까지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왔다.

점심과 저녁을 다르게 담아와서 질리지 않게...

무게로 금액 책정하는데, 워낙 저렴하니까

정확한 금액을 보지도 않아서 모르겠다.

그나마 스위스에서 이 정도로
매일 먹을 수 있는게 행운이고,
여기 수준에서 정말 맛있지만, 절대로
한식에 비교할바는 안된다!
한식은 ㄹㅇ 넘사벽으로 체고심다.

생각날때마다 사진을 찍어두었다.
디저트나 과일은 주로 업무자리로 들고와서
식후 커피와 같이 음미하면서 먹었다ㅋ



팔라펠은 좋은데 목이 막힘... 소스 필수





그릴 닭다리 역시 넘무 마싯다 ㅋ



연어 스테이크는 먹어줘야지 했는데,
저 망고소스가 뭔데 미친 존맛이라 그릇들고마심



불고기 비빔밥이라고 써있어서 넘길수 없었음 ㅋ

어... 음... 불고기 비빔밥같이 생기려고 노력한듯.

맛은 있는데ㅋ 우리가 생각하는 비빔밥맛이 아님



만두 나오는날에는 내가 짹쓸이ㅋ



뽀끔밥도 개쥬아



새우만 겁나 집어옴ㅋㅋㅋ



식당 매니저 분이 하루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시길래 한국인이라 했더니,
자기 딸이 k-pop에 미쳐있어서
한국 여행만 작년에 두번을 다녀왔다 하심.
그리고 한국 음식 정말 맛있다고
진짜 Korean barbecue 너무 최고라고
또 가서 먹길 기대한다고 하심.

약간의 라포를 쓸은 후 편하게 생각하셨는지(?)
뭔가 아시아스러운 음식이 나올때마다
자꾸 나 먹고 있는 자리에 오셔가지고
맛이 어떤지 혹시 authentic한지 피드백을
달라고 계속 초롱초롱한 눈으로 요청하심.

나도 노력은 하는데, 나도 이게 뭔지
모를때가 더 많아서 어려워요...ㅎ ...
아시아인이 너무 없어서 그런건 알겠는데
너무 많은 기대를 받아서 나중엔 일부러 가끔
아시아음식 안떠옴ㅠㅠ 뭐냐고ㅋㅋㅋㅋ

대기업 7년 직장인&휴직러,
스위스 취리히대학교 NLP 석사졸업.
하루의 1/3은 춤에 열정을 쏟고 있고,
나머지 1/3은 인생계획하기를 즐깁니다.
@ UZH @ Kpop Dancer @Daze Crew
유튜브 youtube.com/@imyourbest
김치퐁듀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imchi_fondue/reels/
유학상담 blog.naver.com/imyourbest/222060601671

사람보는 눈

스위스 직장생활

2025/01/16 17:00

<http://blog.naver.com/imyourbest/223724968059>

나이가 점점 들어서인지 아니면
직장생활을 이제 도합 8년정도 하니까
감이 오는건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내가 사람에 대한 감이 약간 생겼구나
느낄때가 종종 있다.
특히, 딱 첫대화에 바로 느끼고,
그리고 그게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점차 많아졌기 때문이다.
아마 이 글을 보는 분들도 어느정도 공감하실듯.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쓰는 타입(내향적)에
사람에 대한 감까지 생겨버리니까
첫인상에 바로
아 이사람은 내가 잘 지낼 사람(에너지를 쓸 사람)
아 이 사람은 관심 아예 없는 사람(에너지 절약)
으로 완전 양극단으로 엄청나게 잘 나누고
그에 맞춰서 행동까지 잘 하게 됨.
상대방도 단번에 알아 채도록 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를 피할 수 있어서 서로 좋다.
(라고 혼자 생각함)

현재 스위스 회사 인터뷰때도 그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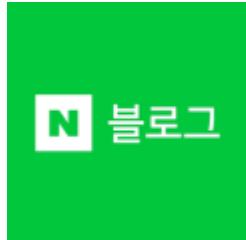
1차 면접때 내 line manager인 J랑은

즐거운 인터뷰를 했는데,

2차 면접 팀장 I때는 내가 곧바로 눈치채고

면접 당시에 어떻게 태도를 바꿨는지

아래 포스팅에 적혀있다.



스위스 유학생 직장을 구하다(3) - 면접 과정 : 스스로를 위한 솔직함

면접은 대부분 회사들이 그렇듯, 이 회사 또한 온라인(MS팀즈)이었다. 그래서 난 모든 면접에서 편하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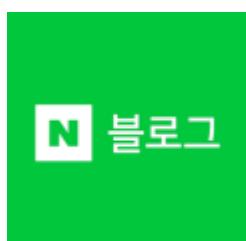
blog.naver.com

그리고 내가 그런 감을 느낄때는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적었다.

직속상사는 좋지만, 팀장이랑은 최대한

안엮이는게 나에게 최선이다라는 확신을 했다.



스위스 유학생 직장을 구하다(4) - 최종 결과

팀장 면접 결과(=최종 결과)는 바로 다음날, 그것도 오전에 나왔다. 스위스의 모든게 느린 것 치고는...

blog.naver.com

나를 힘들게 하긴 커녕 인터뷰를 제외하면

대화를 제대로 한적도 없었는데

신기하게 대번에 감이 오는게 있었음...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어느 날,
팀장 I는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받았다.

그리고 또 다시 4개월이 지나고,
상사 J는 최우수 직원으로
연말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보면서 다시금 느꼈다.
경험을 통한 통계를 무시할 수 없구나...
그리고 내가 느끼는건 남도 느끼는 구나.

대기업 7년 직장인&휴직러,
스위스 취리히에서 힘겹게 석사유학중입니다.
하루의 1/3은 춤에 열정을 쏟고 있고,
나머지 1/3은 인생계획하기를 즐깁니다.
@ UZH Computational Linguistics
@ Kpop Dancer @Daze Crew
유튜브 youtube.com/@imyourbest
유학상담 blog.naver.com/imyourbest/222060601671

스위스 신입 NLP data scientist의 이론과 현실

스위스 직장생활

2024/12/06 18:00

<http://blog.naver.com/imyourbest/223684831569>

내가 스위스 은행에서 NLP data scientist로
일하면서 깨달은 것들은,
(~~개인적인 경험이며 회사바이회사임에 주의~~)

(1)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지부터 문제다.

난 내가 첫 인터뷰부터 "저 SQL 몰라요"한게
일하면서 문제가 되려나 했었는데,
ㅋㅋㅋㅋㅋ NLP에서는 딱히...
(그래도 회사에서 가르쳐주셔서 오라클 잘 배움!)

SQL 수준으로 되는 데이터면 그나마 이미
회사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라는거임.
그 수준도 안되는 회사도 널리고 널렸다.
난 특히나 free text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회사가 애초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을
생각도 안하고 있거나... 뭐 그렇더라구.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은 내가 알아서 가져와야
하는데, 동시에 업종이 Finance인지라 뭐든
방화벽 ✘ 라고 있어서 아주 어떻게 로컬로
데이터를 가져올지 머리가 뽀개졌다.
(초반에는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서 작업을 외부에서 했다...)
예시로 당연하지만 pip install 같은건 다 막혀있음.

(2) 딥러닝 NLP 모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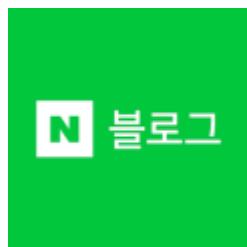
대부분 그럴 리소스 없다. 학교에서는
LLM모델 아키텍처, 최적화 신기술들
이런거 많이 배웠는데 (뭐 잘 기억은 안나지만)

의외로 전통 산업을 영유하는 현업에서는
모든 리소스가 100만년 뒤쳐져있어서
생각보다 내가 할 수 있는게 없음...
그리고 모델링 이런거는 그나마 어느정도
프로세스 셋업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제 막 이게 뭘까? 하는 수준에서
맨땅에 헤딩가지고는 되도 안함.
그래서 난 딥러닝 잘 모르는데... 해도 상관없음!
거기까지 필요한 수준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
난 필요한 경우에 Fine-tuned pretrained LM
직접 다운로드해서 로컬에서 그냥 갖다씀.
데이터 최적화해서 모델 훈련 시키면 좋겠지만
우리 회사는 클라우드도 없고, 결과가
의미있을만한 데이터양이 되지도 않고,
내가 막 모든걸 모델링할 수준자체도 안됨.
(그리고 애초에 그런 수준을 원했으면
학생, 신입 안 뽑음. 경력직 뽑지.)

(3) 가장 중요한건 무조건, 뭘하든지간에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밸류를 가져올 수 있는지임.
그걸 알고자 하는 눈들이 여기저기 많음.
그 사람들은 이 분야를 모르는게 당연하므로
초딩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해야하는데,
나도 내가 현재의 셋업에서 뭘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보다 더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설명까지 해야하니까 아주 괴로움ㅋ
게다가 나는 비즈니스 적용을 아직 배워가는
쌩초짜인데, use case들을 생각해내려니
아주 내 머리로는 쥐가 남ㅋㅋㅋ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들 상대로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우리 팀장N이
너무 흡족해해서... 또 다시금,
아 생각보다 엄청난 수준을 원하지 않는구나
Quick win이 암튼 제일 중요하구나, 느낌.

나도 사실 이렇게 포스팅을 적고는 있지만
내가 비즈니스 마인드를 잘 가지고 있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이전 포스팅, [초반적응기]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이미 7년의 회사 경력이 있음에도
이는 또 다른 업무에서의 현실이다보니.



스위스 신입 NLP data scientist의 초반적응기

[현재 나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신입 NLP 데이터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다... 내가 직장을 구한 과정과 ...](#)

blog.naver.com

하지만 위 포스팅에서도 말했듯 회사는
애초에 '똑똑한 사람'에 관심없음. 그저
(1) 빠르게 회사 상태/레벨을 파악하고
(2) 그에 맞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르게 생각해내고 (3) 그 솔루션을
대충이라도 짜서 (4) 정확도고 나발이고
샘플 1개짜리ㅋㅋ프로토타입을 만들줄 아는
그런 사람이 최고임.

현업에서 많이 구른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선배들을 보면서 아 저럴때는 저렇게,
하면서 또 배워갈 수 있다는게
또한 현업에서 업무하는 장점이긴 하다.

다음 포스팅은

스위스 신입 NLP data scientist의

업무들을 적어볼까 생각중이다.

(주의: 대단한 업무나 프로젝트는 1도 없음)

그리고 내가 한 수많은 실수들도 적어보겠음!

회사 연말 이벤트 모음

스위스 직장생활

2024/11/25 17:00

<http://blog.naver.com/imyourbest/223671345141>

▼입사 한달차 회사 이벤트 모음집▼



[입사 한달차 회사 이벤트 모음 : 입사축하꽃, 생일들, 팀디너, BBQ 파티](#)

[입사 첫날. 입사축하 한다고 꽃선물을 해준 회사?? 귀여운 축하 편지도 같이 들어있다. 꽃이 겁내커서 들...](#)

blog.naver.com

점점 연말이 다가오니

각종 이벤트들이 또 많아지고 있다.

1. 본부에서 다 같이 컬링도 하고
라끌렛도 먹었던 날.
컬링 난생 처음해봐서 신기했음ㅋㅋㅋ
동료직원 N이 사진 너무 이쁘게
찍어줘서 진심으로 고마웠다!



눈오는 풍경 속에서
라끌렛도 원없이 먹었다.



운 좋게도 장소가 집에서 멀지 않아서
춥지 않게 금방 돌아왔다.
취리히 중심에 사는 장점이 특히
술마실 일이 있을때 빛을 발한다.
(왜냐면 난 술을 조아하니까... ㅋ)



2. 회사 멘토링 프로그램 소개하는 이벤트.

C-level 임원들이 패널로 나와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더라구.



근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내용 기억도 안남ㅋ)

이 이후에 아페로를 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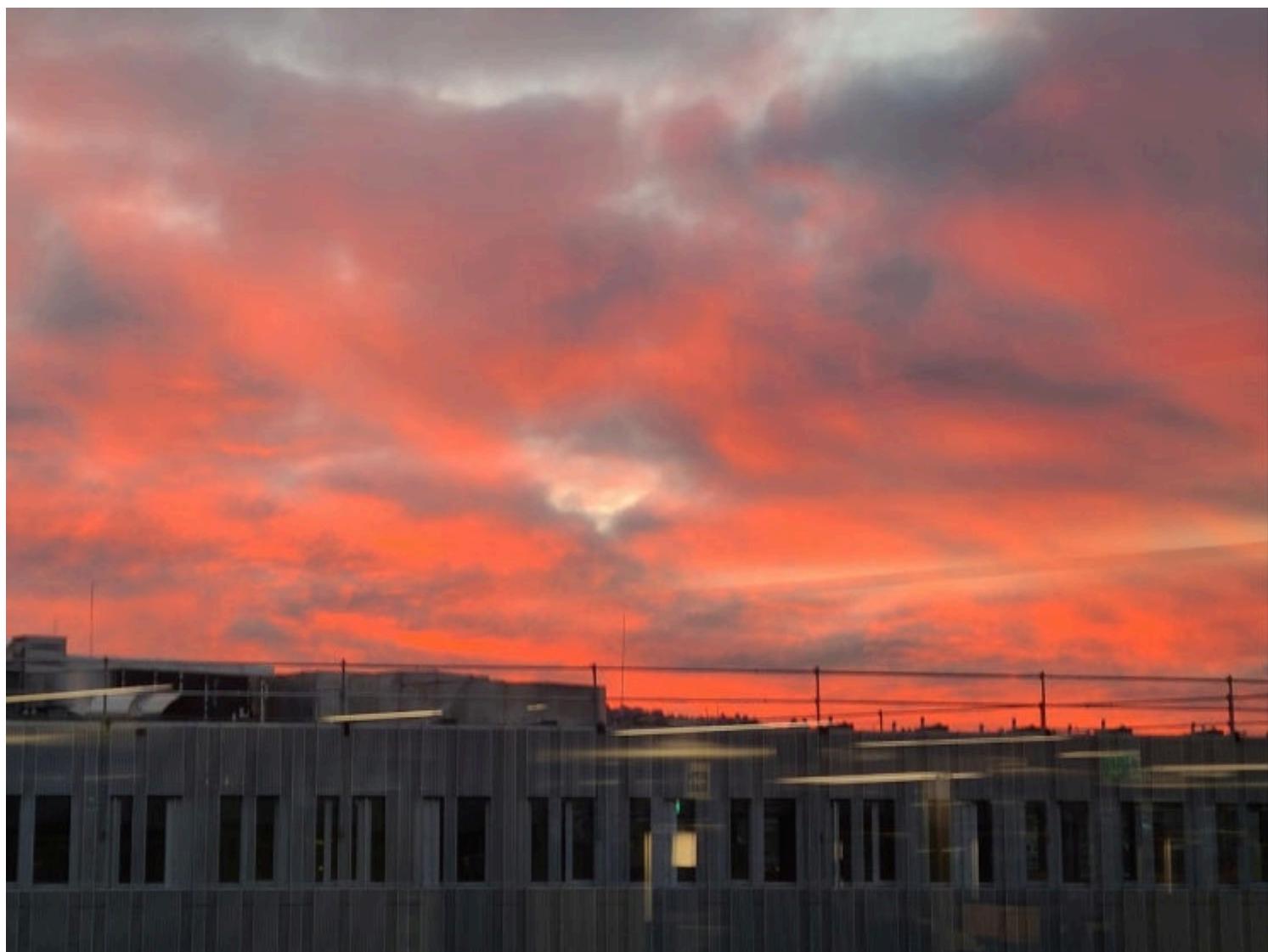
음식이 맛있었당ㅋㅋㅋ

사진을 한개도 안찍었네...

훈제연어 샌드위치 엄청 맛있었는데ㅋ

내가 근무하는 층에서 찍은 뷔. 하늘 색 보소!





3. 회사 연말 파티.

드레스코드는 Christmas chic이었다

넘 애매모호... 난 드레스같은것도 없는데.

그래서 최대한 있는거 그냥 코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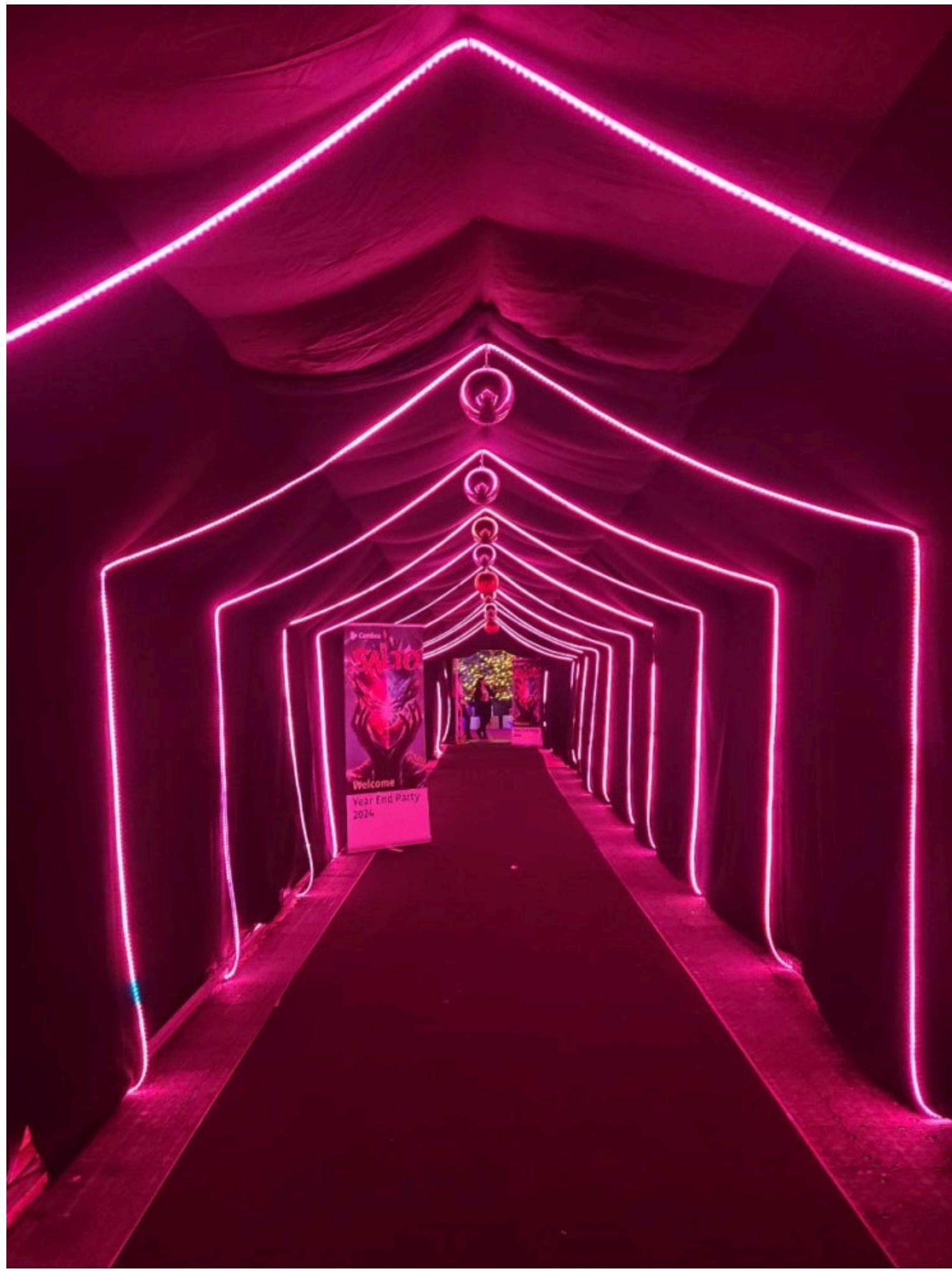
하필 눈 엄청 많이 온날이라 예쁘지 않아도

안전제일으로 눈신발ㅋㅋㅋ





입구부터 장난아닌데? 뭐지? 싶었으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음 ㅋ



안에는 더 휘황찬란ㅋㅋ 눈돌아감



찍으면서도 나 이런 장면 영화에서 본거 같애...

이러면서 찍었다





안타깝게도 음식은 그저 그렇더라...



쇼가 있다길래 구경하러 메인무대로 갔다.



CEO H가 일단 나와서 감사인사를 하고
올해의 수상자를 호명하는데



대박사건ㅋ 내 line manager J가 뽑힘.

역시 내 눈이 맞았어 ㅋ

극초반에 J를 보고 이 회사를 다닐 수 있겠다

생각했던건데, 역시 나만 그렇게 생각한건 아닌듯.

그리고 역시 똑똑한 사람이라

나를 채용하기로 한거지 하하 ㅋ



쇼는 서커스였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0@ 이 표정으로 관람함... 사람인가 ㄹㅇ

어케 저렇게 유연하고 막 날아다니는지









팀과 함께 단체샷!



대기업 7년 직장인&휴직러,
스위스 취리히에서 힘겹게 석사유학중입니다.
하루의 1/3은 춤에 열정을 쏟고 있고,
나머지 1/3은 인생계획하기를 즐깁니다.

@ UZH Computational Linguistics

@ Kpop Dancer @Daze Crew

유튜브 youtube.com/@imyourbest

유학상담 blog.naver.com/imyourbest/222060601671

회사에 힙합댄스가 있다니 ㅋ

스위스 직장생활

2024/11/22 17:00

<http://blog.naver.com/imyourbest/223669097101>

회사에 다양한 이벤트가 많은데

그 중에 뭐지? 이건 날 위한건가?

맞춤복지.... 뭐 이런건가?

싶은 이벤트가 등장했다.

바로 5주간의 힙합댄스 클래스 @.@@ ㅋㅋ

회사가 상당히 힙한데!? 이런걸 열다니 ㅋ

외부 댄서를 초빙해서 회사 내부에서

진행되는 클래스였는데,

말모말모 너무 재밌었다...

당연히 5주내내 빠짐없이 갔다 ㅋ

외부인도 초대가능해서 나는 꼬박꼬박

내 베스트 프렌드도 초대해서 같이 했다.

둘다 완전 신나게 했음 ㅋ

마지막 클래스때 코레오 배운거

전체 촬영하기로 했다.

클래스직전에 ㅋ 미팅중이었고
내가 계속 뭔가 설명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한 클래스 5분 전쯤부터 너무 후달려서
너네 알다시피 나 힙합클래스 가야되니까
슬라이드 다 뛰어넘을게 하고
땡큐 페이지로 가버림 ㅋㅋㅋ

그러고 헐레벌떡 달려갔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김 ㅋ
설명하다가 말고 갑자기 땡큐하더니
애가 스크린 꺼버리곡 ㅋㅋㅋ
(물론 동료들 전부 내가 춤에 열정적인거 잘알고
클래스 듣는것도 다 알고 있음 ㅋㅋㅋ)

하... 이런 심신행복 복지 너무 좋다

이래서 어디에 살든
회사는 대기업을 가야하나 역시

퇴근 하고 나오니 취리히에 첫눈이 와있다.



스위스 신입 NLP data scientist의 초반적응기

스위스 직장생활

2024/11/13 17:00

<http://blog.naver.com/imyourbest/223659015200>

현재 나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신입
NLP 데이터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다...

내가 직장을 구한 과정과 처우는
다른 카테고리에 상세하게 있으니
알아서 찾아보시길 ㅋㅋ

내가 NLP를 전공한답시고 있긴 하지만
이걸로 현업에서 정확히 뭘 할 수 있는건지,
어느 정도 선까지 뭐가 가능한건지
아무것도 몰랐고, 현재도 사실 딱히 잘 모른다.

기존에 7년의 업무경력이 있긴하지만,
분야가 다르다보니
그냥 전부 새로 시작하는 마음가짐이었다.

그래도 기존의 업무경력으로 내가
한가지 내가 확실하게 배웠던건,
학교는 진짜 잘 셋업된 울타리이고
아카데믹한 내용들을 논하는 곳이라
현업은 확실히 다를거란걸 알고 있단 점이었다.

회사입장에서도
더 똑똑한 사람, 더 나은 모델을 만들고,
더 나은 데이터, 더 새로운 기술을 잘 습득하는

사람을 원하는게 아니라(물론 매우 좋지만)
회사에 맞춘 비즈니스적 마인드를 우선적으로
갖추지 않으면 ○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위의 기술은 아카데미에 남은 사람들이
더 잘 해낼 일이지 현업의 중점이 아니다.

이게 말로 들으면 아 물론 그렇지 하는데,
실제로 주간 미팅과 씨름하고
전략, 해결책 적어내느라 고민하는걸
이미 오래 겪은 사람과 단순 석사졸업생과는
일시켜보면 알아듣는 레벨부터 차이가 난다.
내 강점은 여기에 있다는걸 잘 알았기에
이걸 그래도 많이 활용하려고 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나의 NLP 지식 자체는
진---심으로 평균? 평균 아래?라고 생각한다.
이론적으로야 남들보다는 좀 더 알지도 모르지만,
모델을 뭐 척척 만들줄 아는 것도 아니고,
코딩실력도 gpt없으면 0에 수렴함.

인터뷰때 내가 했던 질문들도
이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이 뭔지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맞춰서
뭘 어떻게 하길 바라는지 물어봤다.
나는 일을 해서 당장 3개월 내에, 6개월 내에
돈이 될만한 가치를 생산하려고 있는거고
나도 그걸 원해서 아카데믹 두뇌를 빠져나와
최대한 빨리 현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물었다.
그게 내가 원하는 '직장 생활'의 목표였기도 하고.
내가 이걸 배웠는데 이걸로 일을 할 수 있는건가?
데이터사이언티스트 타이틀이고 회사 타이틀
나발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 '일'을 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고.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회사는 천명이 넘는 임직원을 가진
중견기업임에도 다양한 문제가 많았다.

내가 셋업이나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면
그냥 넌 뭘 해도 좋아, 우리도 잘 몰라,
수준의 답변만 돌아왔다.
이유는, 이 회사가 데이터사이언티스트들은
있지만(게다가 전부 phd들@.@@)
NLP를 하는 사람을 채용한건 쌩!처!음!이라
그들도 나를 어떻게 가이드할지 몰라서
서로 난감... 나도 당황스럽고 길 잃은 아이처럼
대체 뭘 해야하는걸까... 하는 마음으로
첫 한달을 출근했고,
내쪽에서 다 셋업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다 미궁으로 가겠다 싶어서
내가 원하는 환경을 이야기하고
스스로 미팅을 잡는식으로
두번째 달을 출근했다.
오해는 말것. 우리 팀원들 진짜 다 좋은 사람들이다.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난리도 아니었음.
다만 진짜 몰라서 저러는것임 ㅠㅠ

두번째 문제는,
회사가 환경... 인프라... 끌게 없다.
클라우드도 없는데 은행방화벽은 진짜 ㅈㄹ이라
은행 방화벽 자체가 원래 ㅈㄹ인데
여긴 '스위스' 은행이라 너무 심각함!!!
암것도 되는게 없는데 업무를 어떻게 하라는건지
개빡쳤음. 첫달에 내가 전체 팀미팅때
우리는 왜 AWS나 Azure없나요? 저 필요한데요.
없으면 GPU라도 사줘요 ——
했다가 다들 어떻게든 날 도와주기 위해
엄청난 토론을 한 이후로 지쳐서 이야기 안꺼냄.
지금은 복잡도 0인 완전 쉬운 솔루션들로

on prem에서 다 되게 만들었음 ㅋㅋㅋ

회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도 된다는 건

당연히 엄청난 장점이고,

나도 충분히 pro-active한 사람이라

아주 약간의 큰 그림을 알면

내가 스스로 빌드업하는데에 문제는 없는데,

내가 NLP현업 경험이 없는데 불구하고

그냥 완전 쌩백지를 줘버리니까

혼란한 감정으로 너무 힘들더라...



DALL-E로 생성한 AI 이미지 ㅋㅋㅋ

회사에서는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너에게 로켓사이언스를 바라지 않는다고
너무 널 옥죄지 말라고 게다가
회사 인프라가 어차피 니가 원하는 수준을
따라가지도 못한다고(ㅋㅋㅋ) 얘기해주었다.

그래서 회사 초반에 엄청나게,
첫 2개월은 진짜 미친듯이 땅굴을 팠다.
코드도 엎고 또 엎고 그냥 방향도 모르겠고
뭐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출퇴근했다.
짜증나서 울기도 몇번이나 울었음.
혼자 운 것도 아니고
어떤 직원 앞에서도 울고 뭐 암튼 ㅋ

상사분들은 내 그런 모습을 아마 말은 안해도
보면서 다 무슨 상황인지 알았을 것 같다.

이렇게 땅굴파고 지하철까지 건설할뻔했는데,
누가 질문하면 수줍게 나를 소개하기도 하고
내가 하는 프로젝트도 수줍게 보여주고
뭔말인지 모르겠는 미팅참여도 마냥
조용히 꾸역꾸역가고 하다보니...

현재는 프로젝트 하나를 끝내가고 있다.
그리고 어제는 C-level 및 팀장급들 대상으로
NLP/AI 기본지식과 프로젝트에 대해
프레젠테이션 요청을 받아서 떨리지만 해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저 아직 학생인데
다들 재밌고 유익했다고 해주셔서 기뻤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프로젝트나 협업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 중이다만,

내 학생계약이 다음달까지라서 그건 미지수ㅋ

타부서 직장동료와의 웃긴썰

스위스 직장생활

2024/08/16 16:00

<http://blog.naver.com/imyourbest/223548962878>

회사 타부서에 A라는 슬로베니안 직원이 있다.

아직도 그 분이 나를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난다.

'우리가 만났을때'가 아니라,

그 분이 나를 처음 '발견'했을 때.

그 분은 자기부서 동료들하고 가는 중이었고

나는 커피를 타서 내 부서로 돌아오는 중이었음.

그 분이 가던길을 멈추더니 나랑 눈을

마주치려고 엄청 노력하는게 느껴져서

나도 '응?'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쳐다봄.

눈을 마주치자마자 첫마디가,

A : "한국인이죠!?!?! 드디어 이 회사가!"

"??????네???????"

A : "제가 지금 너무 떨려서요.

와! 진짜 한국인이잖아요!"

뭐지? 인종차별의 반대인 인종환영인가?

놀라서 나도 모르게 벽에 몸이 붙음ㅋㅋㅋ

그 분이 죄송하다고 자기가 너무 놀라서

말이 두서없이 튀어나와서 그렇다고 했다.

나는 그냥 워낙 extrovert하신가보다 생각함.
근데 그게 주요 포인트가 아니었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분은 한국문화, 한국, 한국인을
엄청 사랑하는 분임.

A : "말씀 드릴게 많아요.
이 회사가, 아시아인이 있기는 해요."

"아, 네 그렇죠, 한두어명 본거 같아요."

A : "근데!!! 제가 한국을 엄청 사랑하잖아요!"

말하면서 이미 나한테 한복입은 사진
한국갔다온 사진 한국 드라마 자기 보는거
케이팝 플레이리스트 다 보여주고 난리남.
엄청난 급전개식 대화 ㅋㅋㅋㅋ
(나한테 FT아일랜드를 설명해주고 있음 거참 ㅋ
나중에 알고보니 씨엔블루 찐팬임)

A : "제가 이 회사에서 지금 7년을 일했어요.
제가 주 1회씩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기 일하는 직원을 국적으로 sorting해서
한국인을 찾아봐요. 근데,
이놈의! 회사는! 한국인이! 절대! 없어요! 0명!!!!"

Zero! 하면서 엄청 소리지르셔서
옆에 지나가던 직원들 다 깜짝 놀램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그래요?"

A : "네! 진짜요! 이 회사는 진짜

racist인거 같아요!!! 문제가 많아요!"

(내 의견 아님 주의)

아니 그냥 한국인이 여태 아무도 지원을

안했을거라는 생각은 왜 안하나?

하고 혼자 생각함 ㅋㅋㅋㅋㅋㅋ

A : "중요한건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가 아시아인이 아주 조금은 있어요.
인도인도 1명 있고, 베트남인도 1명 있고,
필리핀인도 1명 있고... 근데 왜!
천명이 넘는 사람중에
한국인은 맨날 없냐고오옥!!!"

난 계속 너무 절규하시는게 웃겨서 웃음 ㅋㅋ

"ㅋㅋㅋ 중국인도 있는거 같아요"

A : "네네 맞죠! 중국인도 있긴한데
걔네는 문화가 너무 별로잖아요?
길거리에만 나가봐도 중국인 천지에 있고
하 쓸데없는 중국인만 왜 이렇게 있는지"
(역시나 내 의견 아님 주의, 하지만 솔직히 공감함...ㅎ)

글로 표현이 안될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필터없이 엄청 직설적으로 말하심 ㅋㅋㅋ

A : "근데 중요한건!!! 한달전쯤인가?

주1회 작업을 다시 하고 있는데

진짜! 난생처음! 한국인이 딱 뜯거예요!

와 너무 놀라서 기절할뻔!!!

그리고 그게 당신이었어요!

문제는 이 사람이 어디서 일하는지를 모르겠고,
본사인지, 지점인지, 파트타임인지, 풀타임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주변에 물어봐도

신규직원이라 그런지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그냥 지나가면서 마주치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딱 지나가시는거예요오윽!!!

제가 한국 드라마, 케이팝 엄청 보니까
보자마자 저 사람은 한국인이다! 라는걸 알아요.

그래서 쫓아왔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대로
표출하면 너무 놀라서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정중하게 하려고 하다가
떨려가지고 말이 꼬여서 죄송해요."

"엇 아니예요 ㅋㅋㅋ 전 재밌어요 지금"

A : "다행이예요 ㅠㅠ 이 회사가 드디어
좀 정신을 차렸나봐요. 한국인을 뽑았숴여...
저는 하루의 많은 시간을 회사에 있으니까
회사에 내가 좋아하는 한국인이 있으면
좋겠다고 항상 바래왔거든요.
한국은 정말 모든게 다 멋져요. 어떻게 이렇게
역사와 문화가 멋진 나라가 있지?"

"ㅋㅋㅋ 제가 케이팝 댄서라는걸 들으면 놀래시겠어요"

A : "진짜요!?!?!!?
역시 한국인은 멋지다니깐
빨리 당장 춤춘거 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남자들도 다 너무 잘생겼어요"

"음... 그건 배우랑 아이돌이라 그런거고..."

A : "아니요! 저 한국 여행도 많이 갔는데,
길거리에 지나가는 남자들 전~부 다 잘생겼어요.

완전 내 스타일이라 남편한테 계속

같이 사진 찍어달라했어요"

"한국인하고 결혼하셨어요?"

A : "아니요 ㅋ 남편도 슬로베니안이예요.

근데 제가 한국을 이렇게 좋아한지 10년이 넘었고

남편도 그걸 엄청 잘 알고 동조해주거든요.

그래서 거리낌없어요 ㅋ "

이렇게 쭉 대화를 하는 동안

지나가던 다른 직원들이 전부 보고 미소 지음.

나중에 그 웃음의 이유를 알게됨.

A가 자기가 한국 좋아한다는걸

회사 모든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나랑 얘기하는걸 보고

'아 드디어 ㅋ' 라는 생각을 하면서 웃은거임.

갑자기 지나가는 직원에게 A가 부탁해서

나랑 자기랑 사진 하나 찍어달라고 해서

갑자기 사진 찍었음 ㅋ ㅋ ㅋ ㅋ



문제는 난 워낙 introvert해서
A의 텐션을 절대 따라갈수가 없었음.
게다가 난 한국인이지만 한국드라마 1도
안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름 ㅋㅋㅋ

나한테 자기가 박서준하고 최우식
엄청 좋아한다고 필모도 보여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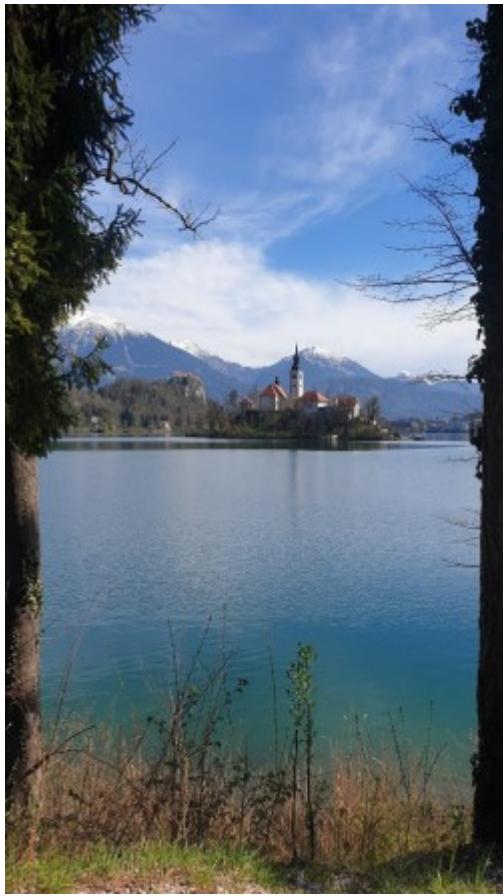
씨엔블루 노래중에 나도 모르는 노래
무대영상 하이라이트 부분을 막 보여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내향적인데다가, K드라마를 거의 안봐서
아는게 없어서 텐션을 못 맞추는것 뿐이지
이 대화는 재밌어요 ㅋㅋㅋ"

A : "아 상관없죠! 개인 취향이니깐요.
한국인이 전반적으로 유럽보다 내향인 비율이
높다는것도 알고, 여러번 방문하면서
대략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반응이 있는지
경험치가 조금 쌓여있어요.
사회와 문화가 전부 다르다는것도 잘 알아요.
걱정마세요. 하고 싶은대로 하세요.
저는 당신이 한국인인 그 자체가 좋아요."

이 이후에 A는 내 스케줄을 물어봐가며
점심식사 약속을 여러개 잡았음.

점심을 먹으며 다양한 얘기도 하고,
진짜 무슨 우연의 일치인지는 나도 모르겠으나
내 최근 여행지가 슬로베니아라서@.@@



[슬로베니아] 블레드 호수, 보힌 호수 ::: 류블랴나에서 당일치기♥

[2024년 4월 2일 ~ 2024년 4월 5일 슬로베니아 여행 류블랴나, 포스토이나, 블레드, 보힌 <영상으로 보기...](#)

[blog.naver.com](#)

슬로베니아 이야기도 많이 했다.

하지만 A는 슬로베니아를 내가 왜 여행갔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톤이긴 했음 ㅋㅋㅋ

(슬로베니아를 싫어하는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명한 관광국가가 아니어서임)

내가 이 때 슬로베니아 꿀이 유명하고

품질 너무 좋다고 들었다고 한마디했는데



휴가동안 슬로베니아에 돌아갔던 A가

그걸 기억하고 꿀을 사옴 ㅠㅠ 감동...

알고 보니 A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회사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들 엄청 편하게 생각한다는걸 알게됨.

멋진 성격을 가지셨더라.

나를 마주칠때마다

"내가 말했지? 우리 회사 한국인 드디어

있다고, 내가 쫓아가서 말 걸었다고.

바로 이 분이야!!!"

하면서 계속 나를 다른 직원에게 소개시켜줘서

의도치않게 A를 통해 타부서직원들의

얼굴을 서서히 익히게됨. 다들

"아~ 맞어! 이분이구나!" 하면서 아는것도 귀여움ㅋ

내 성격이었으면 천만년 걸릴일을

A덕분에 5초만에 성사 ㅋ

회사에서 일어날거라고 생각해본적도

없었던 일이 생겨서 매우 즐거운 썰 ㅋ

입사 한달차 회사 이벤트 모음 : 입사축하꽃, 생일들, 팀디너, BBQ 파티

스위스 직장생활

2024/07/02 16:00

<http://blog.naver.com/imyourbest/223498144300>

입사 첫날.

입사축하 한다고 꽃선물을 해준 회사??

귀여운 축하 편지도 같이 들어있다.



Dear Hyebin,

We are very happy to welcome you in the Data Drivers team today and look forward to working together and building some great data products in the next months.

We all wish you a great start today, and look forward to meeting you in person.

Best,
The Data Drivers



꽃이 겁내커서 들고오는데
퇴근시간 그 사람 많은 트랩에서
안 찌그러뜨리고 싶어서 대박 고생했다.
집에 잘 모셔놓고서 창문열어두는 바람에
첫날에는 벌들이 파티를 열어서 개놀랐다.

하지만 기쁜 마음과는 비교가 안되지.

업무용 노트북과 기타 장비들도 받았다.



그리고 팀 전용 후드티도 있다.
나는 빨간색으로 주문해놓았다. 사진에 입고
있는건 아직 못 받아서 남는거 입었을 때.



회사 굿즈도 다양하게 많다?

그 중에 텁블러랑 컵이 빨리 갖고 싶은데,
신규입사자 웰컴데이(7/3)에 받을 예정이다.

사원증 스트랩은 빽빽 우겨서 미리 받았다.

자꾸 사원증을 놓고다녀서 환장하겠더라고.
(사원증 없으면 엘베버튼도 못누르고
팀 내부 공간에 들어가지를 못함)

입사 후 며칠지나서 A의 생일이었다.

팀원들 모여서 간단하게 디저트파티.
O가 아랍인이라 아랍디저트 갖고 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바클라바 있어서 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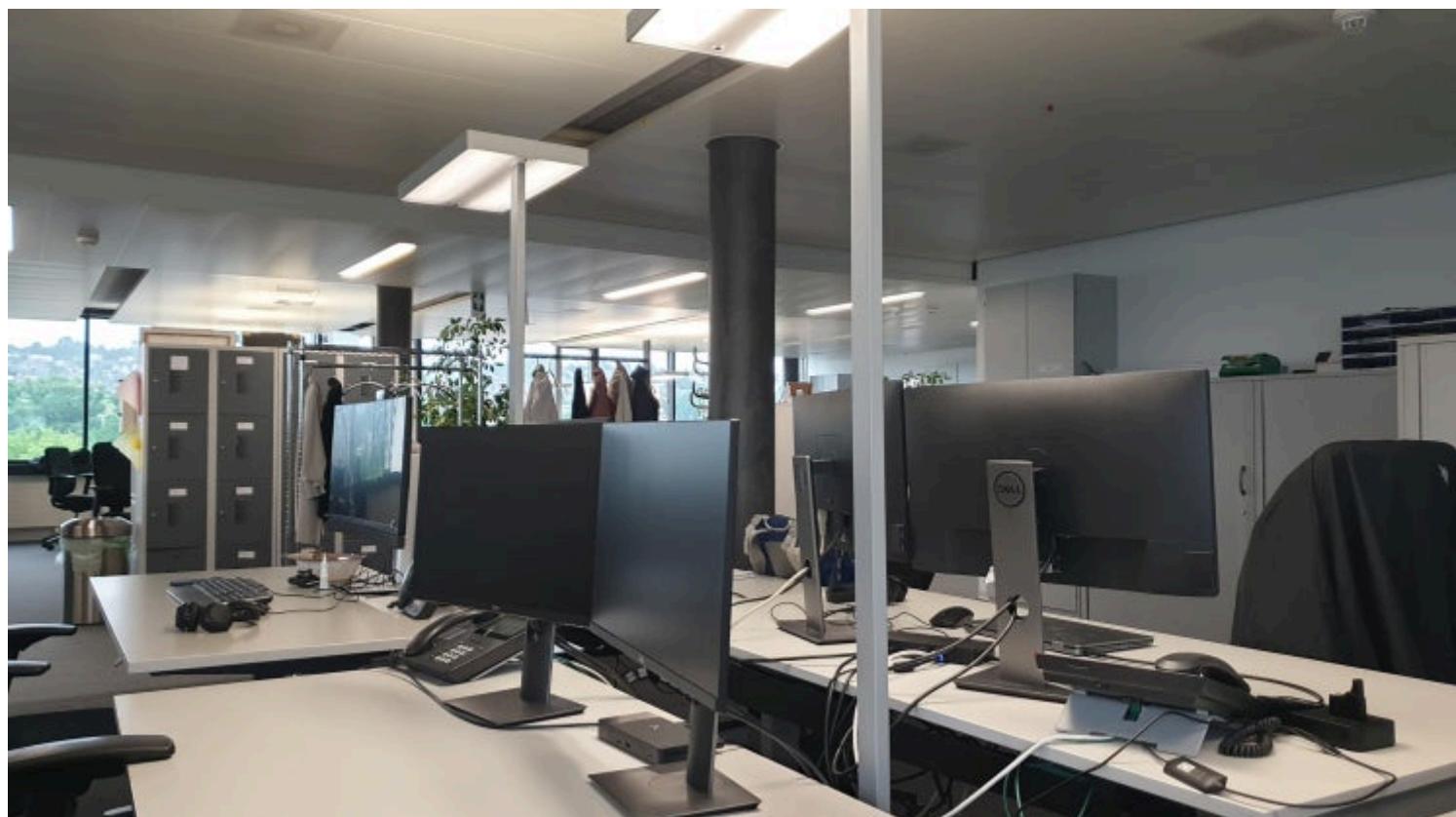
내가 일전에 말한

- 내가 출근해도 다른 사람들이 없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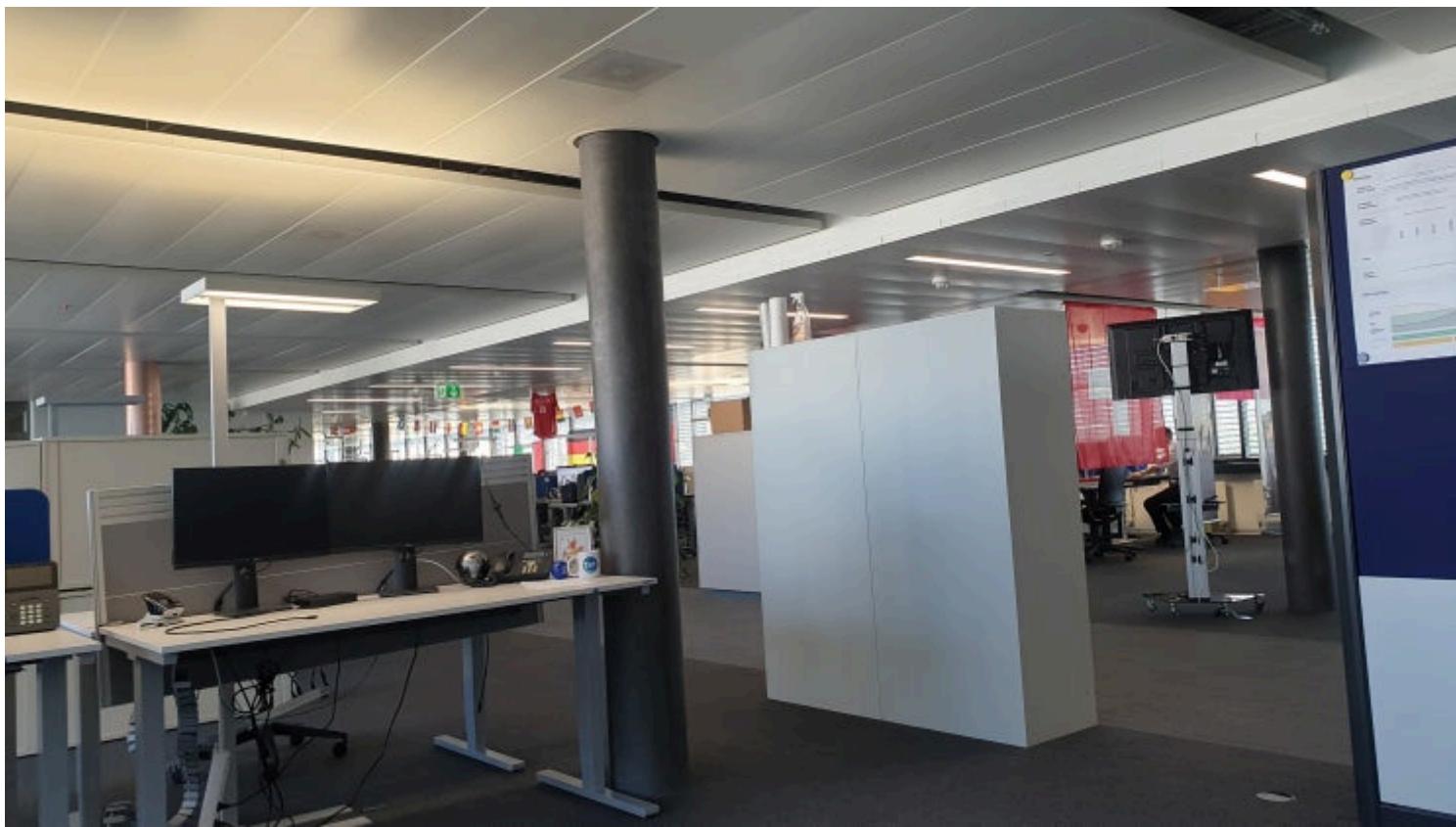
(스위스 유학생 직장을 구하다 8편 참조)

의 현실 모습이다.

똑똑 어디계시죠 다들 헬로우



사무록...?



그래서 월수금은 자연스럽게 재택이 되버렸는데,

난 그냥 내 선택으로 매일 오피스를 가고 있다.

재택이 싫어서가 아니고,

회사밥이 충격적으로 맛있고 저렴하고 다양해서

모든걸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충 봐도 뷔페 메뉴 40개는 되는듯)

이제는 회사밥으로 저녁식사까지 싸오기 때문에

점심저녁 모든게 커버된다.?.

오피스를 감으로서 모든 장보기, 요리 시간이

최다 절약될 뿐만 아니라,

오늘 뭐먹지하는 고민시간 자체도 절약된다.

이런 사람이 당연히 오조오억명 있어서

회사에서도 튼튼히 싸갈수있는 식품용기를

엄청나게 잘 마련해두었다.

이 비싼 스위스에서 이 퀄리티의 음식을

점심+저녁 합쳐서 8프랑(1만 2천원)이면 먹고,

게다가 스프, 샐러드, 디저트가 공짜라구 ㅋ

덤으로 커피도 공짜. 아메리카노 말하는거 아님.
라떼 마끼아또 바닐라라떼 핫초코... 전부 공짜!

이젠 주말에 집에서 요리할 때
화가날 지경에 이르렀다.?

팀저녁이 있던 날.

여기 너무 예뻤는데 풍경사진을 하나도 안 찍었음.



[Micas Garten · Badenerstrasse 790, 8048 Zürich, Switzerland](#)

[**★★★★★** · B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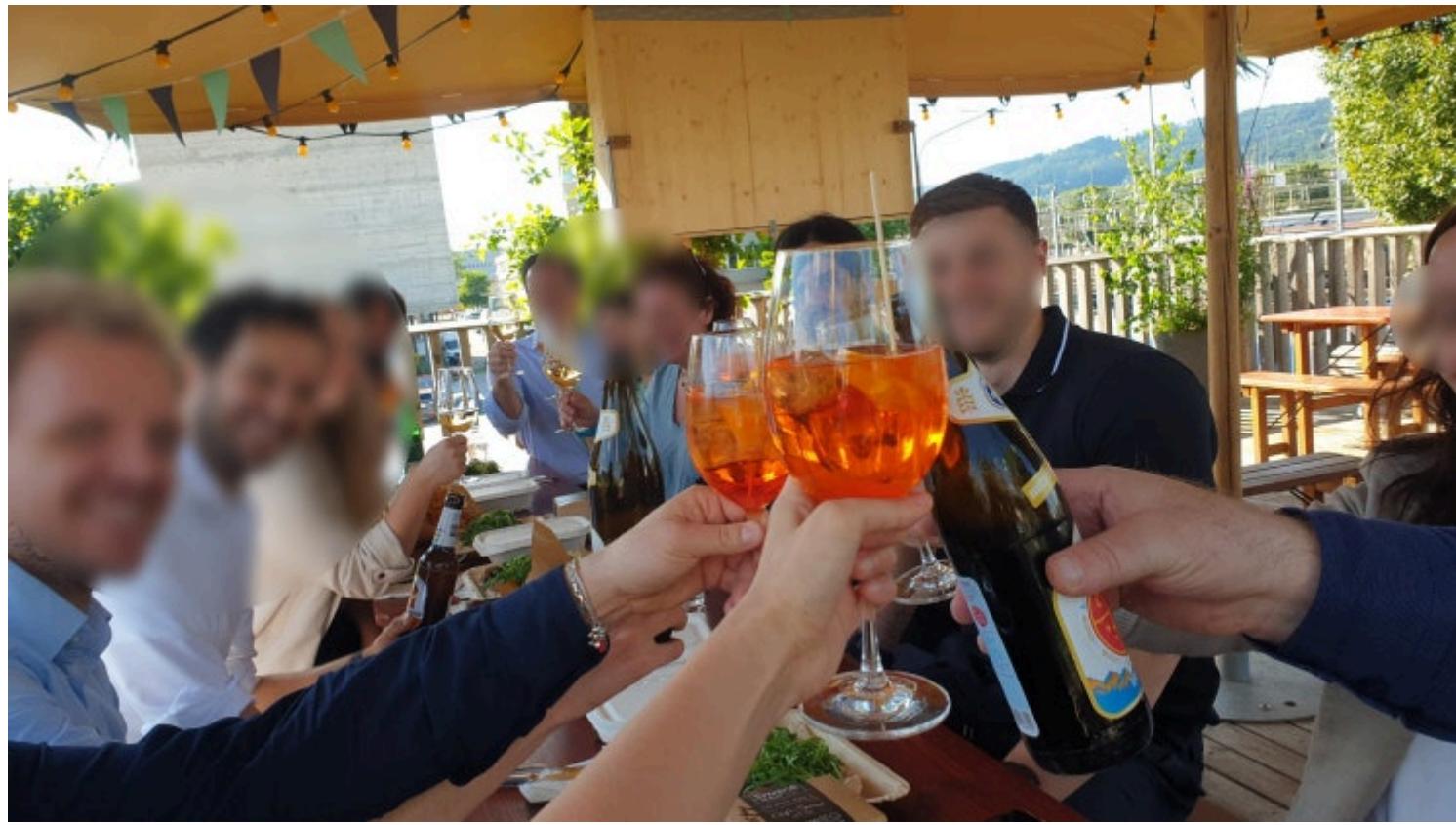
[maps.app.goo.gl](#)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막내인 내가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신규입사자는
아직 소속된 기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적어서
촬영을 맡으면 안된다고 해서(?)
결국 제일 연차높은 분이 사진을 찍으셨다.
말되네 ㅋ



아래 사진은 내가 열심히

'건배'라고 가르치고나서 찍었다 ㅋ



아페를 + 모모 + 맥주 조합 흡입함 ㅋ

더 웃긴건 팀원들은 죄다 앓아있고

팀장이 음식 나르느라 제일 바빴음 ㅋ

그게 주문을 팀장이 해가지고

I폰에 어디가서 뭘 받아야하는지가

적혀있어서 그랬던건데, 나는 ㅋ

익숙하지가 않은 상황이라 웃겼음.

(암튼 나는 가서 도와드렸음 ㅋㅋ)

또 다른 팀원A의 생일이 있던 날.

오전에 다들 옹기종기 모여서

커피와 다양한 초코디저트를 먹었다.



회사 전체 바베큐 파티가 있던 날.?
장소이동 조차도 셔틀버스로 이동해서 편했다.
뭔 궁전같은 곳을 빌렸나 이 회사는

[Restaurant Belvoirpark · Seestrasse 125, 8002 Zürich, Switzerland](#)

[★★★★★ · Swiss restaurant](#)

[maps.app.goo.gl](#)



도착하자마자 손에 아페를 쥐어줌 고마워용



여기서 대박 웃긴 실수를 했다.

아래 사진 중앙에 있는 청바지 남자분이 CEO임.



저분이 내가 팀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곳에

하셔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하길래

하이하이 저는 신규입사자 초코빵이예요!

어느 층에서 일하세요?(부서 알아볼겸)

여쭤봤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음, 여기저기서 일해요 하시길래

아 그래요? 혹시 6층에서 일하세요?

저는 6층에 데이터애널리틱스 팀에 있어요!

하니까 하하하 하시더니 저는 CEO예요

하셔서 순간적으로 진짜 놀정지가 옴.

진짜 말그대로 5초정도 그대로 얼었음.

그리고 천천히 원망스럽게 팀원들을 둘러봤는데

다들 진짜 웃음 참느라 죽어가고 있었음.

나중에 팀장님도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진짜 너무 웃겨서

저 잔디밭에 쓰러지심 하.....

CEO는 굉장히 Chill하신 분이라

아무 상관없긴 한데 그냥 내가 너무 놀람ㅋ

그리고 이 막돼먹은 초코빵은 이후에
CTO에게 ppt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하라는
요청까지하고 자빠짐 진짜 미치겠음
왜 아무도 나를 안말리냐고요 제발
하극상만 하다 회사생활 끝나것어

아무튼 이 날은 그릴이 주 메뉴라서
여기저기서 맛있는 고기를 원없이 먹음.



너무 예쁜 뷔...





이 이후에 나는 소셜배터리가 0%가 되어서
9시반쯤 떠났고, 팀원들은 12시까지 놀았다고 함.
다 좋긴한데 나는 그래도 I라 한계가 있음ㅋ

대기업 7년 직장인&휴직러,
스위스 취리히에서 힘겹게 석사유학중입니다.
하루의 1/3은 춤에 열정을 쏟고 있고,
나머지 1/3은 인생계획하기를 즐깁니다.

@ UZH Computational Linguistics

@ Kpop Dancer @Daze Crew

유튜브 youtube.com/@imyourbest

유학상담 blog.naver.com/imyourbest/222060601671

스위스 유학생 직장을 구하다(최종) - 계약내용, 급여와 복지

스위스 직장생활

2024/06/20 16:00

<http://blog.naver.com/imyourbest/223483989782>

이렇게 채용 프로세스를 전부 종결짓고
계약서에 최종적으로 싸인을 했다.
아래는 계약의 내용이다.

Term

이번년도 말까지이다. Student 포지션인데,
내가 이번년도 말이 되면 석사논문이
끝날예정이고, 그 이후 졸업각재야해서
더이상 Student가 아닐 확률이 있어서
회사랑 계약자체를 새로 해야한다.
당연히 양측 모두 원하는 경우만.

Workload

최종적으로 스위스 이민국의 규정에 맞춰
학기 중에는 주 14.7시간(35%)
근무로 고정이 되었다. (주1.75일 출근)
엄청 이상한 workload지만 어차피 첫출근
일주일 후 바로 방학이라 아무 상관이 없었음.
그리고 방학 중에는 주 4회 출근(80%)한다.

회사가 방학에 100%를 넣으려고 한 것 같은데,

내가 미리 나는 second job이 있다고 말했다.

바로 오랫동안 해온 주말 렌트카 알바(20%)임.

지금 포지션이 돈 훨씬 많이 주는데도
이걸 왜 안 관두고 유지하기로 결정했냐면,
이 알바 재밌어서 ㅋ 계속 고객상대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나는 재밌고 일이 엄청 쉬워서 좋음.
주말에만 일하니까 지금 회사랑 겹칠일도 없고,
엄청 유연해서 내가 그냥 이번주 안할래요 하면
스케줄에 안 넣는 식이다보니 내가 넘 좋아함 ㅋ
이렇게 두가지 판이한 업무를 가지면 한쪽에
매몰되지 않고 리프레쉬 되겠다고도 생각함.
결국 내 기준에서는 종합 100% 근무가 되는데,
정신노동+컴터랑 대화

vs

육체노동+고객이랑 대화
를 넘나들게 되는것임 ㅋㅋㅋ

이게 돈만 놓고보면 ㄹㅇ 바보같은 결정인게,
이 결정으로 월급이 100만원 차이난다.
게다가 이 결정덕에 상사부터 CEO까지
전부 내 계약서에 내 second job을 승인한다는
싸인을 해야했다.(HR이 고생이지 난 아니지만)

하지만 스스로가 이걸 원한다고 확신했음.
내 결정은 나를 위한 것.
내가 이미 좋아하는 부분들을 알바에서
충분히 찾은 이상, 유지하고 싶음 ㅋ
이미 이 회사 동료들한테도 난 렌트카에서
알바 20%합니당! 하고 얘기해둠.

60%와 80%중에서도 좀 고민했었는데,
나는 80%를 택했다. 왜냐하면...

나는 배움도 느리고 코딩하면서 새로 배우고
적용해야할것도 많고 방법론이든
솔루션이든 방향이든 부딪혀보느라
전반적으로 업무마다 탐색이 오래걸릴 느낌.
이렇게 나한테 할당된 업무들 해내느라
웬지 추가로 근무할 느낌이 팍팍 들었음.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차라리
돈 받으면서 하자 싶어서 80%로 결정했다.
입사 후 동료와 상사에게 내가 이 생각을 말했더니
오 그런 생각이었냐 그러지마라 너를 깎아먹으면서 일하지마
회사는 행복한 직원들을 원해 라고해서 마음은 놓였다.
다만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한 기준치가 있어서 아마 잘 안될듯.

Salary

나의 근로자분류는 Master's student이며,
내 카테고리 연봉은 78,000프랑이다.
(1억 2천만원, 세전. 2024.06 기준)
석사졸업장이 있는 신입급여는 더 높을 것이다.
나는 학기 중에는 35%(주1.75일 근무)라
월 2,275프랑(350만원, 세전)을 받는다.
그리고 방학 중 80%(주4일 근무)는
월 5,200프랑(800만원, 세전)을 받는다.
6월1일부터 9월15일까지가 방학기간

나는 무조건 무슨 숫자가 됐든
급여가 매우 마음에 든다. 아주 대만족함.
똑같이 배우고 NLP과제(?)하는데
여태 학교에 돈을 "냈는데"
이제는 돈을 "받음" 이니깐ㅋ

절대적인 숫자 자체는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되고

스위스의 미친물가를 생각해야한다.
모든게 우리나라의 3배 비싸다.
그러므로 극단적으로 그냥 내가 받는 연봉
나누기 3해야 한국 연봉과 비교할 수 있다.
이 말이 안 와닿는다면 아래의 표를 참고▼

난 Zurich에 적힌 가격에 이미 다 적응이 된 상태라
저게 비싸다는 생각조차도 이제는 안 드는데
서울 Column을 보고 상당히 싸서 놀랐다...
나는 춤을 좀 저렴한 나라에서 춤것이지
비싼나라에 와서 춤다고 난리일까 ——

Restaurants	Zurich Edit	Seoul Edit	Difference
Meal, Inexpensive Restaurant	25.00 Fr. (37,527.71 ₩)	7.33 Fr. (11,000.00 ₩)	-70.7 %
Meal for 2 People, Mid-range Restaurant, Three-course	120.00 Fr. (180,133.01 ₩)	46.63 Fr. (70,000.00 ₩)	-61.1 %
McMeal at McDonalds (or Equivalent Combo Meal)	16.00 Fr. (24,017.73 ₩)	5.33 Fr. (8,000.00 ₩)	-66.7 %
Domestic Beer (0.5 liter draught)	8.00 Fr. (12,008.87 ₩)	3.33 Fr. (5,000.00 ₩)	-58.4 %
Imported Beer (0.33 liter bottle)	7.00 Fr. (10,507.76 ₩)	4.66 Fr. (7,000.00 ₩)	-33.4 %
Cappuccino (regular)	5.41 Fr. (8,121.38 ₩)	3.49 Fr. (5,235.30 ₩)	-35.5 %
Coke/Pepsi (0.33 liter bottle)	4.81 Fr. (7,215.67 ₩)	1.41 Fr. (2,112.99 ₩)	-70.7 %

Benefit

회사복지는 기본적으로 갖춰진 회사들이
가진 복지들을 전부 가지고 있다.
식대, 교통비, 경조사비, 교육비 지원 등등.

본사에 있는 피트니스센터 무료이용가능,
네스프레소 커피랑 차 무료로 무한제공,
자사제품(은행 상품...) 임직원 혜택,
다양한 외부 브랜드 제품들 할인혜택,

무슨 멤버쉽??? 지원등이 많은데 이해는
다 못했음. 필요한 경우 차차 알아가겠지.

직원 구내식당이 나는 솔직히 제일 좋다.
두가지 메뉴와 세종류의 뷔페, 각종 디저트가
있는 것도 너무 좋은데 퀄리티도 완전 좋음.
가격도 학식가격인데 엄청 맛있음!

내가 계속 걱정했던 것 중 하나는,
8월말에 동생이 결혼하기때문에 이미 한국
항공권을 끊어놔서 긴 휴가!가 매우 중요했다.
계약서상에는 내가 쓸수있는 유급휴가가...
연중입사이고 풀타임이 아니어서 9일뿐ㅠㅠ
너무나도 부족했다. 그래서 상사랑 HR에
나 동생결혼있어서 가야되고, 연달아서
내 생일, 추석도 가족이랑 같이 보낼거라
최소 3주간의 휴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상사도 HR도 문제없다고 컨펌해줬다.
게다가 무급으로 안가도 되고
약간씩 초과근무한 시간 긁어모아서
휴가로 교체해서 쓰라고 상세히 알려줌.

아 그리고 이건 Benefit은 아니지만 그냥
추가적으로 업무용 랩탑과 장비들을 받았는데
내가 생각한 것처럼 커다란 비즈니스 랩탑이
아니라 가볍고 13인치짜리를 받아서 좋음.

Work & Environment

내 포지션은 1편에서 이미 말했듯이
Data Scientist이고, 업무는 NLP이다.

동료직원들은 다들 친절하고 좋다.
특히 내 상사 J가 사람이 좋음.

방문 첫날도 직접 1층까지 데리러와주고
온보딩 교육을 차근차근히 시작했다.
나를 여기저기 소개시켜주기 시작하고
각 만나는 사람들마다 최소 1시간씩은
1대1 세션을 잡아서 각자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려주고 내가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게해줬다.
나 혼자 알아서 두면 적응하겠지하고
최소한만 도와줬으면 나는 내향성 폭발
수줍어서 어벙하게 있었을것 같은데,
하나하나 다 챙겨주니까 아빠같음 ㅋㅋㅋ
근데 서로 나이는 모름 여긴 나이같은거 안 물어보기 땜에
굉장히 사소한 것도 물어본다 예를들어서,
첫날에 점심식사시간에 다른 직원들도 끼면
혹시 너 아직 너무 overwhelmed 하려나?
나랑만 가도 괜찮으니까 원하는걸 말해줘.
혹시 1대1 세션이 길어지는 것 같으면
미팅룸에 똑똑- 들어와서
애 오늘 하루종일 배우는데 뇌과부하 오겄어.
애를 너무 잡지마...한다 ㅋ

그리고 아직 이름도 제대로 발음 못하겠는
모바일팀 팀장님이 벌써 앱리뷰 분석해달라고
득달같이 일을 주셨는데 어벙하다가 알겠다했음.
그 얘기를 듣고 상사 J가 일을 일단 그런식으로
프로세스 셋업없이 구두로 시킬수 없고,
우리팀 프로젝트 전부 우선순위 지정하고나서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한번 보겠다며
파워거절해버림. 오오오 글쿠나 고마웡요

회사가 매우 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말했듯 임직원수 1천명정도)
오히려 내 재량을 펼치거나 배울기회가 많다.
구글 임원이었던 정김경숙님이 말씀하셨듯

큰 회사는 1/n이 굉장히 작고
모든게 유기적으로 고도체계화되어있어
개인이 부품화 되는 당연한 면이 있는데
(나도 이전 회사에서 살짝 느꼈던 부분...)
이 곳은 일단 NLP만 포커스를 두는 직원자체가
나 한명이라서 내가 뭘 하는지에 따라 달렸다.
해석하기에 따라 굉장히 부담스럽고,
솔직히 그냥 주어진거 하고 싶기도 하지만,
내가 아이디어를 주도적으로 꺼내볼 수 있는
포지션이기도 해서 실패하고 죽쑤면서
정말 많이 배울 것 같다.

또 반대로, 너무 작은 회사도 아니어서
시스템 자체는 이미 체계적이다.
그래서 내가 마냥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면서
방법론을 강구하려고 혼자 애쓴다거나,
다양한 role을 소화할 필요도 없다.

이 회사와 이 포지션은
이미 적절히 갖춰지고, 적절히 유연하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회사는 없겠지.
문제는 팀 외부에 있다.
다른 팀들이 내가 초기셋업하는데 있어서
심각하게 도움이 안됨. 대답도 잘 안해주고...
당연히 상사들도 도와주려고 하는데 잘 안됨ㅠㅠ
그리고 C레벨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많음.
여러가지 문제를 이미 파악했는데
지금 이 포스팅이 너무 길어서
여기 다 못쓸것 같음. 나중에 써보겠음.

여기까지, 스위스에서 직장구한 이야기 끝.

이제는 다시 직장인 일지가 시작될지도...?

내가 좋아하는 구내식당 이야기,

회사동료 이야기, 업무 이야기,

회사 이벤트 이야기 등등...ㅋ

대기업 7년 직장인&휴직러,

스위스 취리히에서 힘겹게 석사유학중입니다.

하루의 1/3은 춤에 열정을 쏟고 있고,

나머지 1/3은 인생계획하기를 즐깁니다.

@ UZH Computational Linguistics

@ Kpop Dancer @Daze Crew

유튜브 youtube.com/@imyourbest

유학상담 blog.naver.com/imyourbest/222060601671

스위스 유학생 직장을 구하다(9) - 근데 나 잘한거 맞나?

스위스 직장생활

2024/06/17 16:00

<http://blog.naver.com/imyourbest/223481596808>

하.지.만. 내 스스로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다 잘 흘러가는 상황덕에
수면아래에 내내 잠자고 있던 걱정이,
이제서야 스멀스멀 치고 올라왔다.

심각하게 긴장이 되기 시작했다.

나 잘한걸까?

타국에서 첫 회사생활(알바 제외...)

그리고 내 전공과 관련한 업무는 단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인생 최초인데.
새로운 환경, 새로운 업무, 새로운 사람
모든게 갑자기 너무 크게 다가왔다.

나 이미 인터뷰에서 말했듯 진짜 바본데.

대학에서 깔짝 공부한게 전분데.

내 프로젝트 다 보셔서 아실텐데.

코딩 딱히 특출나지 않는데.

뭐뭐 못한다고도 이미 얘기했는데.

회사자체에 대한 적응이야 이미

한국회사에서 해봤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나쁘지 않았어도.

(그리고 아시다시피 나는 결국은

어디서든간에 적응을 잘하는 편)

하지만 내 실력에 대한 의문이 떠나질 않았다.

내가 실력이 진짜로 충분한지 모르겠고,

가서 명청듣고 아무것도 못해내면 어쩌나.

이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기쁨은 온데간데없이 사르르 사라지고

이날부터 매일같이 악몽을 꾸고, 수면이

얕아지고, 새벽에 잠에서 깨길 반복했다.

생각과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극심했다.

그래 회사가 바보도 아니고 작은회사도 아닌데

내가 뽑힐만큼은 되는거지 하다가도

갑자기 아니 이회사는 뭘 보고 사람을 뽑냐?

생각이 진짜 없는거 같네?

하면서 ㄹㅇ 지킬앤하이드가 따로 없었다.

나는 내 감정을 속에 쌓아두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려는 타입이라

손글로 적어보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감정적인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물론 내가 지금 블로그에 쓰는 이 글 또한

내 감정을 돌보는 하나의 방식이다.)

계속 힘들어하는 시간을 거친 후에

너무 감정에만 치우쳐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후 조금씩 이성적으로 생각을 시작했다.

어떤 부분에서 정확히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건지를 최대한 좁혔다.

회사는 이미 내 쪽에 많이 맞춰주었고
크게 나쁘지 않아 보인다. 상사는 좋아보인다.
와서 니가 배운걸 선보여!가 아니라, 많이
배울 수 있을거라고 얘기해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정식으로 회사에서 NLP를 하는게
처음인지라 너무 떨린다. 왜 떨리나?
몰라서? 실수할까봐? 아니 모르는 것도,
실수하는 것도 당연하다. 아직 일개학생인데.
그리고 잘하는 사람을 원했으면 돈 더 주고
그런 사람을 뽑아야지, 나를 왜 뽑겠나.
그럼 왜? 스스로 잘하고 싶어서인것 같다.

어떻게 운 좋게 이 과정은 통과했는데
이건 사실 시작일뿐이다.
여기서 개인업적을 잘 쌓아가야 추후
더 맘에 드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것이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아마
이런 스트레스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추가적인 스트레스는 3편 면접썰에서
말했듯이, 팀장 성향이 약간 나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최대한 팀장과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상황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었음.
(이 부분은 내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나만 팀장의 성향을 난해해하는게 아니었음.
모든 팀원이 비슷함. 근데 팀장이 내 상사를 스kip하고
나한테 뭘 직접적으로 시키지는 않아서 별 문제없음.)

학교내 심리상담센터까지 처음으로
문을 두드렸다. 말뿐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정말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니까,
아, 이건 나 혼자의 의지로 될게 아니다
라는 생각에까지 미쳤고,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 조언중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해서
이 이후에는 그냥 스트레스 자체를
"나 매우 스트레스 받는군" 하고
곧이곧대로 그냥 받아들이게됨.

근데 역시나 상담은 내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하고 하는 것보다 못했음.
난 내 스스로 방법을 더 잘 아는 것 같음.
그래서 강 저 한번이 끝임.
그 이후로 다시 안감ㅋ

일 시작하고 3주가 흘러서 추가한 내용▼

실제로 내 실력이 좋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은
계속해서 있음. (학교시험도 폐일하는데 뭐ㅋ)
일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뭘 얘기해줘도
잘 못알아들을 때가 아직은 엄청 많음.

게다가 내가 워낙 introvert하다보니
새로운 환경/사람에 대한 에너지소모를
견디느라 피곤함이 가중됨.

그 누구도 나한테 뭔가를 기대하지 않음.
상사든 동료들이든 다들 굉장히 좋음.

그냥 나 혼자서 이러는것임.

그냥 아직 나도 내가 뭘할수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고 알아가는 중이다.

10편 최종화(계약내용)가 이어집니다.

대기업 7년 직장인&휴직러,
스위스 취리히에서 힘겹게 석사유학중입니다.
하루의 1/3은 춤에 열정을 쏟고 있고,
나머지 1/3은 인생계획하기를 즐깁니다.

@ UZH Computational Linguistics

@ Kpop Dancer @Daze Crew

유튜브 youtube.com/@imyourbest

유학상담 blog.naver.com/imyourbest/222060601671

스위스 유학생 직장을 구하다(8) - 나의 최종 결정

스위스 직장생활

2024/06/12 16:00

<http://blog.naver.com/imyourbest/223472523442>

그렇게 내쪽에서 회신을 주기로 했던
월요일이 되었다. 오후 늦게 사측에
포지션을 받아들인다는 메일을 썼다.
동시에 내 쪽에서 준비할 제반서류,
사용중인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업무 시작전 읽어야 할 문서,
신입직원 연수 여부 등등도 같이 물어봤다.

상사J에게서 우리팀에 합류한다고
해주어서 기쁘다는 메일을 회신 받았다.
내 질문 답변도 준비해서 전달해주겠다 했다.

내 근무스케줄에 대해서는,
상사 J가 학교 일정이 있을 때 언제든
조정할 수 있다고 여러번 안심시켜주셨다.

J가 5월 20일까지 휴가라고 해서
첫 업무일자는 5월 22일로 내가 정했다.

이 아래의 내용은
내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적은 것임!
개인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
적응도 빨리하고 시스템도 빨리 알고
살부대끼고 질문해야 흐름을 캐치하니까

회사에 그냥 계속 출근을 하고 싶어서
초반 몇주간만이라도 그냥 재택근무없이
회사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굳이 말한 이유는, 내가 회사가도 다른 직원이
아무도 없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 적응되더라도 업무의 선이
잡힐때까지 오피스 출근하고 싶다고 얘기함.
그래야 팀원들도(특히 J) 내가 올지도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있어주지 않을까ㅋㅋ

난 지금 재택근무고 뭐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회사가서 빨리 적응하고 싶다. 어차피 먼것도
아니고 회사밥도 맛있고(★중요★).
게다가 회사가 재택근무를 장려하는 분위기란걸
이미 알고 있으니 내가 굳이 재택근무 옵션을
아등바등하면서 끌어안고있을 이유도 없다.
내가 알아서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싶을때
재택근무로 전환할 것이다.

위와 같이 적었었는데, 막상 일한지 지금
3주째 되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월수금에 회사에 오는 사람이 없음ㅋㅋ
사무실이 횡함. 화목에만 사람들이 옴.
이 회사 전반적인 norm인건지... 그러다보니
모든 미팅들(오프라인의 경우),
모든 회사 이벤트가 화목에 몰려있음.
그러다보니 나도 월수금에 회사를 갈 동기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월수금이 재택근무되버림.

그래서 월수금 재택, 화목 오피스 이렇게 한다.
재택근무하는 날들은 중간에 3시간 정도
그냥 쉬면서 Dynamo에 춤연습 하러간다.

나는 workload 80%라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낮시간에 춤연습을
가고 싶은 의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연습실 늦은 시간에 가면 춤출 자리 없어서 싫음)
쉬는시간을 엄청 크게 만들어버려서
매일 출근 안하면 80%를 못채운다 ㅋㅋㅋ

개인적으로 회사 밥도 맛있고
팀원들도 다 좋아서 회사가는거 좋은데...
재택근무도 좋긴한데... 암튼 양가감정ㅋ

9편 근데 나 잘한거 맞나?가 이어집니다.

대기업 7년 직장인&휴직러,
스위스 취리히에서 힘겹게 석사유학중입니다.
하루의 1/3은 춤에 열정을 쏟고 있고,
나머지 1/3은 인생계획하기를 즐깁니다.

@ UZH Computational Linguistics
@ Kpop Dancer @Daze Crew
유튜브 youtube.com/@imyourbest
유학상담 blog.naver.com/imyourbest/222060601671

스위스 유학생 직장을 구하다(7) - 회사측 최종 결정

스위스 직장생활

2024/06/03 16:05

<http://blog.naver.com/imyourbest/223467616006>

전화는 자연스럽게 스물톡으로 시작했다.

HRO이 잠시 침묵하더니, 나에게

우리는 초코빵을 채용하고 싶어요.

Data Analytics팀에서 말하길,

내부적으로 토론을 한 끝에

자기네 쪽을 조정해서 초코빵을 채용하고 싶대요.

그게 우리쪽 최종 결정임을 정식으로 알립니다.

라고 이야기해주었다.

Non-EU 학생 규정에 문제없도록

학기 중 주 15시간(35%)으로 맞춰줄거고,

대신 방학 중에는 workload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 부분은 팀하고 얘기를 따로 해보라했다.

(방학이 6월~9월로 3.5개월이라 꽤 길다.

0/미 이 글을 쓰는 현재 방학임ㅋㅋㅋ

방학 중 80% workload로 계약된 상태이다)

이 회사는 나가리, 하고 있던 상태라

HRO이 저 얘기를 꺼냈을 때

"I'm glad to hear that" 라는 말이 안나오고

"WHAT!?" 이라고 함ㅋㅋㅋㅋㅋ

"채용할게요" 했는데 "뭐라구요!?" 라니

HR은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초코빵이 2024년 12월까지 논문을 마친 후
이후 몇개월 내에 졸업계획이 있으니
일단 초코빵 계획에 맞춰서
근로계약을 12월까지로 하려고 한다.
(졸업하면 더이상 *'working STUDENT'*가
아니어서 계약서 자체를 다시 써야되기 때문)
그런데 초코빵에게도 이번주말동안의 시간을
더 주고 싶다. 이 포지션을 받아들일건지
잘 생각해보고 월요일에 초코빵의
최종결정도 알려달라.
초코빵의 최종결정이 확인되면
월요일에 바로 이민국에
Work permit을 신청하겠다.
permit이랑 제반서류 작업,
그리고 시스템에 직원 등록 등등해서
총 한달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최초 업무 시작일은 5월 중하순일것이다.
정확한 날짜 또한 팀과 상의해라.

라고 해서 또 한번 회사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생각을 함.
HR은 그냥 주어진 절차를 따른거겠지만,
자기네들쪽에 나랑 안맞는 부분 포함해서
나한테 맞춰 전부 조정을 해주고,
그러면서도 또 나한테 더 시간을 주고
내 결정을 기다려준다고 하니
내 입장에서는 나쁠게 없음.

전화를 끊은 후에 나는 깊은 생각에
빠진채로 주말을 보냈다.
(문제는 주말 이틀내내 렌트카에서 알바하고
댄스크루와 야외촬영까지 있어서
개인 생각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긴 했음ㅠㅠ)

그래서 밤늦게 M이랑 통화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크리티컬하게 봐야하는게 있을까,
내가 캐치못한건 없을까 등을 물어보았다.
M이 자기 근로계약서 보면서 얘기하자해서
계약서상 조항들 하나씩 같이 보면서
내쪽에서 질문할 사항들도
(휴가, 해고, 건강보험, 초과근로 등)
하나씩 가닥을 잡았다.
M은 스위스인이라 나랑 규정은 다르지만
이미 몇번 얘기했듯 이 상황에 있는
Non-EU친구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냥
나를 제일 잘 이해하는 친구를 찾은것이다.
오히려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어떻게 채용된거냐고
물어보기 바빠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안됨

난 한국에서 일을 오래했었어도
그래도 스위스는 또 다른 국가이므로
M이랑 같이 규정을 꼼꼼히 체크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이 포지션을
받아들이는게 맞겠지...? 하는 고민으로
일요일 저녁시간을 보냈다.
뭐가 어찌되었든간에 별로 없는 좋은 기회이고
이걸 발판삼아서 또 다른 기회를 찾으면 되니까.

8편 나의 최종결정이 이어집니다.

대기업 7년 직장인&휴직러,
스위스 취리히에서 힘겹게 석사유학중입니다.
하루의 1/3은 춤에 열정을 쏟고 있고,
나머지 1/3은 인생계획하기를 즐깁니다.

@ UZH Computational Linguistics

@ Kpop Dancer @Daze Crew

유튜브 youtube.com/@imyourbest

유학상담 blog.naver.com/imyourbest/222060601671

스위스 유학생 직장을 구하다(6) - 안되면 안되는거고

스위스 직장생활

2024/06/01 16:00

<http://blog.naver.com/imyourbest/223465274231>

그렇게 규정 알아보겠다고 한 초코빵은
이미 마음속으로 완전히 포기를 해버려서
너무 귀찮았기 때문에 알아볼 생각도
안하고 뺐댔다. (아주 책임감없는 망나니 녀석)
안되는거면 그냥 안되는거지.
막 붙잡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

근데 상사가 알아본 것 업데이트 좀 해줄래요?
하고 메일이 옴.
헐 뭐야 아이구 기다리시는구나 안되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다음날에

immigration office, uni kanzlei,

career service center... 전부

전화를 돌려서 규정을 알아보고

다양한 옵션을 물어보았다.

이 전화 돌릴 때...

이민국은 말하는 중간에 내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미 이민국에서 내 전화를 거의 10번은

회선을 넘긴상태라 정말 짜증났었는데.

(난 ㄹㅇ 가슴에 손을 얹고 정중의 극치를 달렸다)

태도가 정말 지랄맞다는건 알고있었어도 아오

이민국에 전화하기 진짜 너무 싫다.

일 저렇게 해도 돈을 번다 여기는. 정말...

이건 스위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 국가들 중

이민지원자들이 많은 국가들은 특히 이민국의 태도와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굉장히 논란과 소송이 많다.

여기에 짜증내고 있을 시간도 없고
나도 애가 지랄맞은 곳에 살다보니 무뎌졌는지
한국 나와서 살아보면 한국이 친절, 스피드 전부 최고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심지어 금방 잊었네.
지금 글로 쓰다보니까 기억나서 적었음.

아무튼 알아본 후 상사에게 답메일을 보냈다.
학기 최대 주 15시간, 방학 100%까지 가능
을 벗어나는 다른 옵션은 없다고.
회사에서도 회사에서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알아본 것 같았다.

그리고 다음날 금요일,
부엌에서 요리 중인데
이미 약속된대로 HR한테 전화가 왔다.

6편이 짧은 대신 7편을
조금 더 빠르게 올리겠습니다?

대기업 7년 직장인& 휴직러,
스위스 취리히에서 힘겹게 석사유학중입니다.

하루의 1/3은 춤에 열정을 쏟고 있고,
나머지 1/3은 인생계획하기를 즐깁니다.

@ UZH Computational Linguistics

@ Kpop Dancer @Daze Crew

유튜브 youtube.com/@imyourbest

유학상담 blog.naver.com/imyourbest/222060601671

스위스 유학생 직장을 구하다(5) - 자격요건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스위스 직장생활

2024/05/27 16:00

<http://blog.naver.com/imyourbest/223458075485>

HR은 처음엔 부적격사유 점검정도로

내 CV에 대해 간단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그리고 회사는 나에게 일반적인

Working student position들과 다르게 여기는

시급제가 아닌 연봉제로 계산한다고 했다.

그래야 임직원 복지가 똑같이 적용되고,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

자기네들이 규정을 3년전에 바꿨다고 했다.

시급은 받는 돈이 들쭉날쭉하고

본인이 아직 시급근로자라는 그 기분도

약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회사의 이 태도는 높이 샀다.

문제의 workload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됐고,

양측 모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말그대로 포지션에서 원하는 workload와

내가 법적으로 가능한 workload가 안 맞았다.

(심지어 1편에서 말한 40%도 안되고

규정에 strict하게 맞추면 35%임)

나는 내가 제대로 인지하고 지원했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도 혹시 회사에서
international 지원자들을 많이 채용해왔으니
workload를 맞출 수 있는 오프더레코드
방식을 뭔가 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난 갖고 있어서 지원한거라고 솔직히 말했다.

HR 또한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다.
일단 내가 Non-EU 지원자이고 자기네들이
규정을 제대로 알고 포지션 요구사항과
매칭시켜서 미리 확인 후 진행해야하는건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이 회사도 석사생 Non-EU를 얼마나 안 뽑은건지
대략적으로 짐작이 가는 부분...)

그렇게 둘다 미안미안거리는 이상한 찰나에
HR에 의해 호출된 내 상사가
다시 미팅룸으로 돌아왔다.

workload 문제에 대해서 상사는 처음에는
약간 놀라고 생각에 잠기는 눈치였다.
아무래도 회사입장에서는 업무에 대해서
이 정도가 필요함을 역산해서 나온 수치라
단순 재조정을 할수가 없으니까.

나도 분위기를 읽고 동공지진하다가
죄송하다, workload에 제한이 없는 사람
(당연히 Non-EU제외)을 구하셔도 괜찮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규정때문인거고,
나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법은 지켜야하니까
난 당연히 죄송하고 받아들인다. 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도 또 따로 있다.
직속상사랑 면접을 볼 때 나에게
1년 이상 장기로 일할 수 있는지,
(이건 내가 졸업이 끼어있어서
졸업시점이후로 재논의해야한다고 얘기함)
혹시 60% 이상으로도 일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었기 때문이다.
(이때 잘 몰라서 되는 줄 알고 된다고 말함...—)
나에 대한 기대치를 물어봤을때도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다른 팀원들과
함께 같이 논의하고 진행할거라고 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전반적인 대화를 보니까...
사이드 프로젝트 하나주고 일할 사람말고,
조금 장기적으로 팀의 구성원이 되어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 느낌이어서였다.

상사는 팀이랑 같이 다시 이야기해봐야한다
했고, HR도 해당 팀에서 답변받아서
나에게 금요일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상사분이 나에게 혹시
fixed-term accumulation방식은 안되는지,
예외적인 사항은 없는지 등 알아봐달라고 했다.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면서
회사를 상사랑 같이 나오면서 눈치도 보이고,
집에 오는 길이 기분이 좋았다고 할 순 없다.
주로 나를 뽑는데 소요한 시간과 자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자리한것 같다.

한 사람만 뽑는 자리였고,
나 혼자만 최종 합격자로
이제 서류작업만 남은 시점이었는데
요건이 안 맞는걸 이제사 알았으니 원.

흠, 안 맞는거 보니 아니었나보군,
다른 회사 구해보면 되지 뭐! 하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속 시원히 포기를 했다.

2편 끝자락에도 썼듯이,
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스트레스 받는 타입이 아니라 어렵지 않았음.
(단,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는 반대로
필요이상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단점 있음.)

가장 큰 이유는 1편에서 말한 최대목적
- 회사 일자리를 얻을 수준인가? - 는
합격해서 이미 달성한 상태이다보니
마음을 놔버린것이었음.
심신의 안정이 되니까 이미 목적 달성한거라
가서 일을 잘하고 돈을 벌고 이런 목적이
아직 뇌주름에 자리잡히지가 않았음.

6편에서 그냥 놔버리다가 이어집니다.

대기업 7년 직장인&휴직러,

스위스 취리히에서 힘겹게 석사유학중입니다.

하루의 1/3은 춤에 열정을 쏟고 있고,

나머지 1/3은 인생계획하기를 즐깁니다.

@ UZH Computational Linguistics

@ Kpop Dancer @Daze Crew

유튜브 youtube.com/@imyourbest

유학상담 blog.naver.com/imyourbest/222060601671

스위스 유학생 직장을 구하다(4) - 최종 결과

스위스 직장생활

2024/05/22 16:00

<http://blog.naver.com/imyourbest/223453213140>

팀장 면접 결과(=최종 결과)는

바로 다음날, 그것도 오전에 나왔다.

스위스의 모든게 느린 것 치고는

상당히 빨라서 깜짝 놀랐다.

어? 이 회사 뭔가 이상한 회사인가 싶어서

그제서야 막 회사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근데 임직원 그나마 1,000명 넘고

상장도 되어있는 중견기업이길래 안심했다.

기업평점같은것도 대충 보니 그냥 중간.

장단점이 다 있는 곳인듯했다.

면접 결과를 알려줄 때, 상사도 팀장도 항상

나에게 positive impression을 받았다는

말을 꼭 붙여서 알려주었고

어느 회사나 그러니까 별생각없었는데,

팀장면접결과때는 특히 뭘 자꾸 못한다한후라

positive글자가 어색해서 혼자 웃겼음ㅋㅋ

나중에 H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같이 웃다가 한 말이

"근데 난 너를 처음봤을 때부터 여태까지

너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넌 항상 자신감이 있어보여.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곧장 솔직하게

얘기하는 뭔가 그 단단한 모습이 있어.

아마 거기서 그걸 본거 같애."

H의 생각이 당연히 기분은 좋지만,
정작 나는 내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 조금 아쉽...
난 휘잉휘잉 갈대같은 사람같음

내가 슬로베니아 여행중일때 답변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주 화요일로
회사 방문 일정이 잡혔다.

이미 최종까지 모든 면접을 통과한거라
회사 방문 일정은 면접이 아니었다.
난 또 마지막 면접인줄 알고
뭐 준비해야하냐고 물어봤잖슴...ㅋ
그냥 팀원들 만나고, 회사도 구경하고,
HR과 서류도 정리하는 자리였다.

회사 본사가 취리히에 있고,
집에서 30분정도 거리라서 좋은데,
거리계산을 잘못해서 지각했다.

게다가 비오는데 우산도 안 챙겨가 가지고
지각한 비맞은 생쥐가 되어서 갔지만ㅠㅠㅋ
상사를 처음으로 직접 만난 건 기뻤다.

커피 전부 공짜에 cafeteria가 매우 맛있다고
회사리뷰에 적혀있어서 아직 서류도 안 썼는데
기대감이 슬슬올라왔다(음식에 진심인 것도 있지만,
특히 스위스처럼 음식에 대한 발전이 1도 없는 나라에 살면

내가 이렇게나 음식에 목 메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됨)

자연스럽게 합류한 팀원 두명도 만나서
같이 스몰톡도 하고 백그라운드도 공유했다.
다들 친절하고 좋았지만, 무조건 편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그들은 상사고,
신규인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위치니까.
(하지만 그런 것 치고는 나도 굉장히 곧바로
댄스에 대한 열정을 열심히 소개하게 함정ㅋㅋ)
팀에 총 12명이 있는데, 스위스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해서 그것 또한 좋았다.
스위스 사람이 싫다는 건 절대 아니고,
영어가 유일한 전체소통 언어이며, 일하면서
독일어를 마주칠 일이 없단 사실이 좋은 것임.
내 상사는 네덜란드인이고,
이 날 같이 이야기한 동료들은
헝가리인, 폴란드인이다.
팀장은 독일인이다.

잠깐 팀장도 대화에 합류하긴 했는데,
곧바로 미팅을 하러 떠났다.
그러면서 1시간후에 다시 보자고 했는데
1시간후에 팀장은 오지 않았다.
팀원들이 역시 팀장님 그럴 줄 알았다
저분 굉장히 chaotic하다고 진반농반하길래
역시 내가 본 성격이 맞구만. 싶었다.
이미 팀장이랑 최대한 안엮이는 게
나에게 최선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음ㅋㅋㅋ
다행히 내 직속상사분이 나를
맘에 들어하셔서 다행이지만.

HR과 최종 면담을 진행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1편에서 말했던 문제가 생겼다.

(기억안나면 1편 다시 읽고오도록)

5편에 이어집니다.

대기업 7년 직장인&휴직러,

스위스 취리히에서 힘겹게 석사유학중입니다.

하루의 1/3은 춤에 열정을 쏟고 있고,

나머지 1/3은 인생계획하기를 즐깁니다.

@ UZH Computational Linguistics

@ Kpop Dancer @Daze Crew

유튜브 youtube.com/@imyourbest

유학상담 blog.naver.com/imyourbest/222060601671

스위스 유학생 직장을 구하다(3) - 면접 과정 : 스스로를 위한 솔직함

스위스 직장생활

2024/05/15 16:00

<http://blog.naver.com/imyourbest/223445234265>

면접은 대부분 회사들이 그렇듯,
이 회사 또한 온라인(MS팀즈)이었다.
그래서 난 모든 면접에서 편하게 나의 데일리룩,
댄서용 박스티/배기팬츠를 입고 면접을 봤다.
면접보고나서 춤추러 가야하는 개인스케줄 엄수ㅋ
심지어 팀장 면접때는 앉을곳을 못찾아가지고
서서 서성거리며 면접본게 웃기닭ㅋ

일단 어쩌다 이 회사의 실무자 면접을 합격했다.
(이 분이 내 직속상사)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됨)
면접자체는 굉장히 편하고 좋았는데, 아무래도
지원자가 많다보니까 면접시간을 굉장히
엄밀하게 잡아놔서 약-간 타임어택같았다.

내 프로젝트(학교 과제들뿐, 개인 플젝 0개)는
이미 다 보내놓은 상태라 그걸 보신듯했고,
IT스킬과 백그라운드를 전반적으로 물어봤다.
백그라운드는 전 직장 경험을 마구 떠듬.
(지 얘기 하는거 엄청 좋아하잖음)
IT스킬은 그나마해서 좀 안다고 할 수 있는
Machine Learning, NLP, Python, R을
내가 CV에 적어놔서 이미 알고 계셨음.

근데 대박사건. 대화중에 이 상사분이

내 CV에 스킬을 하나 추가시켜주심:::
정확한 대화는 기억이 안나고 대충 이랬음.

J : Data analytics팀내에는
Data warehouse 어쩌구 Engineer 저쩌구...
나 : 아항 저는 Postgre밖에 안 써봤어용
J : 엠? SQL알아요? CV에 안적혀있는데?
나 : 어, 아뇨, 음, 안다고 해야되나?
보내드린 성적표 보시면 Database관련
수업 딱 두개 들었어요! 근데 많이 까먹었어요.
J : 아! 그 정도면 완전 충분해요 충분해요.
어차피 와서 배울거예요
나 : 아 진짜요?(엠 그렇구나? 눈알 도록도록)

이렇게 암튼 CV에도 안 적었었고
기억안난다고 얘기했으니까
뭐 시켜도 모른다 배우겠다하면 되고 좋음ㅋ
이 이후 자신감을 얻고 CV에 SQL도 추가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때부터 J가 뭔가 내가 해봤는데 잘하지 못해서
안쓴게 더 있나싶었는지 다른것들도 물어봄.
C++ 개못한다 했고(재수강까지했는데 1도 이해안감)
Js, html, css는 개발하고 싶은 앱있어서
혼자 쯤쯤따리 공부한게 전부이고
제대로된 수업을 들은게 없다고 했음.
= 즉, 뭐 더 이상 아는게 없어요ㅋ

내 질문 기회가 주어졌을때는,
내 업무의 방향이 뭔지, 대략적인
아웃라인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는지 등을 물어봤다.

며칠후 좋아좋아 다음단계로 가자 하면서
팀장 면접 일정을 잡자고 메일이 왔다.
그 다음날 최고 이른시간(9amㅋ)으로 잡음.
내가 열정녀여서가 아니라, 나 이날
슬로베니아 여행가야해서 짐 싸야되는데
면접때문에 다른 일을 잘 못하겠어서
걍 면접부터 해치워버려야겠다 생각해서임.

팀장면접때는 팀장이 너무 진취적인 but
정신없는 서타일처럼 느껴져서 안되겠다 싶어서
내가 거의 모르는 분야/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강조해서 일부러 얘기함. 그리고 학교 무슨 과목
에서 아주 지진아같았는지 등등. 저런 사람들은
본인이 불꽃맨이어서 남한테도 요구사항이
많을게 뻔하기 때문에 미리 끊어놔야됨.

(질문도 없었는데 내가 먼저 못한다고 얘기시작함)
나 : 저 아직도 기억나는게 Data Science전공할때
Algorithm수업들었는데 와 진심 저는 제가 그렇게
멍청할 수 있다는걸 처음알게된 수업같아요 ——
(+ 두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는 현란한 제스쳐)
I : ㅋㅋㅋㅋㅋ 개웃기네 Software Engineering쪽은?
나 : 아 Software engineering은 수업
수강신청도 안해봐서 애초에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받은 답변은
"너의 openness 고마워" 였다.
아 네? 그렇게 생각해주신다고여? ㅠㅠ

I : 그래도 일하면서 배우려는 의지는 있죠?
나 : 아 네 그건 당연하죠 회사가 학교도 아니고
갈쳐준다하면 엄청 좋은거져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실질적이고
돈받으면서 배우는데 그건 당연히 좋지)

팀장한테는 일부러 더 불꽃이 타오를만한
질문은 하지않고 오히려 완전 반대로
걍 좀 수준이 낮은 질문을 했다.
"회사 구글맵 리뷰가 왜 이렇게 안 좋나요?"
등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NLP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토픽이라고 생각함. 단지 면접자체에
어울리는 질문이 아닌것을 질문했다는 의미임)
그리고 열심히, 노력 등의 단어는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았다.

당장 이 포지션을 득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내가 해보고 싶은/맞는 방향의 일을
스스로가 선택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그리고 다할수있을수록 들어가봤자
뱉은 말 때문에 스스로를 옥죄는데
내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음?
내가 우선임. 이런 상황에 나를 놓고 싶지 않음.
때문에 뭐가 됐든 항상 매우 솔직하게 했음.

실무자 면접 때는 그렇게 떨리지 않았었는데,
팀장 면접은 솔직히 많이 떨려가지고
말을 쪼까 버벅거린듯. 안그래도 내용도
지진아같은데 좀 버벅거리기까지해서
대지진아같았을거 같은데... 암튼
그리고 팀장은 다른 지원자들을
면접보러 바로 떠나갔다.

4편에 최종결과가 이어집니다.

대기업 7년 직장인&휴직러,
스위스 취리히에서 힘겹게 석사유학중입니다.
하루의 1/3은 춤에 열정을 쏟고 있고,
나머지 1/3은 인생계획하기를 즐깁니다.

@ UZH Computational Linguistics

@ Kpop Dancer @Daze Crew

유튜브 youtube.com/@imyourbest

유학상담 blog.naver.com/imyourbest/2220606016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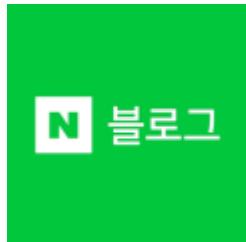
스위스 유학생 직장을 구하다(2) - 스위스 구직시장 : Non-EU는 빽세다

스위스 직장생활

2024/05/08 16:00

<http://blog.naver.com/imyourbest/223439659295>

▼무슨 업무? 구직한 동기?▼



스위스 유학생 직장을 구하다(1)

[일단 마음이 힘들어서 글쓰기를 열었다. 그런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심란해하기보다는, 현재까지의 ...](#)

blog.naver.com

이렇게 구직활동이 진행되어 가다보니
주변에 Non-EU들이 석사중이나, 마치고서
회사에 취업하는 케이스들을 좀 봤으면
여기저기 물어라도 봤을텐데,
그런 케이스들이 진짜 없어도 너무 없었다.

Non-EU의 경우, 스위스에 꼭 머물고
싶다면 대부분이 PhD를 고려하고, 그게 맞다.
PhD 포지션 따기가 절대 쉬운건 아니지만,
일단 학교밖으로 나와 직장을 구하는것보다는
확실하게 더 문이 오픈되어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PhD할 학생을 구한다는
전체메일도 학교에서 흔하게 자주 받는다.

PhD 케이스는 정말 흔하게 많이 봤지만,

후자는 상대적으로 보기 가 힘들다.

PhD만 너무 많은 이유는 다양하다.

학교 Comfort zone에서 벗어나는 스트레스를

겪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선호도 있을 것이며,

좀 더 안정적이어보이는(실제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면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보다도 절대적인 큰 이유는,

일단 회사들이 Non-EU를 크게 비선호한다.

▼ 조금 옛날 게시물이지만 현재와 다를 바가

없어서 실제 어떤 인식인지 참고할 수 있다▼

[독일에서 학위 후 스위스에서 취업 가능한가요? > 생활문답 | 베를린리포트](#)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독일에서 석사과정에 있습니다. 분야는 IT이구요. 독일에서 석사를 마친 후 스위스에서 취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가요? 스위스에서 학위를 취득하지 않았어도 바로 취업을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berlinreport.com](#)

같은 능력이면 무조건 Local Swiss나 EU를

선택하는데, 어찌보면 너무 당연하다.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선호체계가 있다.

스위스인 -> EU인 -> Non-EU인 순이다.

(물론 Non-EU내에서도 해외경험 유무에 따라 나누지만,

그 전에 이미 위의 선호체계가 너무 절대적으로 작용한다)

즉, 스위스에서 같은 조건으로

스위스인/유럽인과 경쟁해서

직장을 잡는것 자체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그냥 제네바에 있는 국제기구에 채용되거나

한국에서 스위스로 파견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게 현실적으로 훨씬 더 가능한 옵션이다)

우리나라 취업시장 엄청 어렵지만,

그래도 국내인끼리의 싸움인데
여기는 뭔가 유럽대륙 전체와의 경쟁...
(물론 내 자리는 full time가 아니고
working student라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어쨌든 경쟁의 풀과 적용되는 제한은 같음.)

이 선호는 ★개취★로 나온 결과가 아니다.

법적인 근거가 촘촘히 있다.

우선적으로, 스위스 정부에서

Non-EU 채용인원을 정책적으로 제한한다.

이 Quota는 스위스 입장에서 당연히 필요하다.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는 선진국이 있을리가?

우리나라도 자국민 채용 최우선시 안하면 난리날

문제는 스위스가 코딱지만하다보니

저 Quota가 더더더 코딱지만하다는 것.

둘째로는, Non-EU 구직자 자체가

Local swiss와 EU 구직자에 비해서

일단 너무 많은 제한이 걸려있고,

work permit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프로세스를 거쳐야해서 Non-EU 지원자가

독보적으로 크게 뛰어나지 않는 이상

Non-EU를 뽑을 이유가 아예 없다.

회사를 십분 이해한다. 내가 회사여도

나 또한 Local이나 EU를 선호했을 것이다.

게다가 생각보다 많은 포지션들이 너무

높은 수준의 German proficiency를 요구한다.

C1 수준도 아니고, Native를 요구하는 포지션도

많이 봤다. 그러다보니 원래도 좁은 시장에서

Non-EU내부 경쟁까지도 치열해진다.

본인이 Non-EU라도 독일어를 잘하면

당연하게 선호에서 올라간다.

난 독일어 거의 못하지만 그나마 필드가

IT라 독일어 이슈는 다른 필드대비 낫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턴쉽이 안된다.

인턴쉽이 전공의 졸업요건에 의무사항으로

들어있지 않는 이상은 규정을 초과하는

workload의 인턴쉽을 할 수 없다.

인턴쉽이 workload 40% 미만인건 현준하질 않음

그건 인턴쉽이 아니라 파트타임

그러다보니 지원할 수 있는

자리들이 한줌 남는다.

이렇게 줄줄 나열하는 이유는,

스위스의 Non-EU구직자에 대한 태도를

한줄한줄 느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구직자체가 주는 스트레스에 추가로, 내가

먹이사슬의 최하티어라는걸 알고 시작하는 것.

But only 10-15% of students from countries outside the EU and EFTA get a job in Switzerland after their studies, according to estimates by Economiesuisse, the Swiss Business Federation.

https://www.swissinfo.ch/eng/business/labour-market_non-eu-graduates-struggle-with-swiss-job-access/44959126

그럼 너도 PhD를 하지 그러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진통 빠가사리라

PhD는 정말 내 두뇌로 할 수가 없다.

난 진짜 아카데믹 두뇌가 아님 ㅠㅠ 바보다.

게다가 대학공부가 이미 너무*100 진절머리...

학사 졸업 후 너무 오래되가지고

얼마나 대학공부가 개짜증났는지 잊어서

바보같이 대뜸 석사를 시작한 덕분에(?)

다시 깨달았다. 이건 지인짜 내것이 아니다.

스위스에 정착을 하고 싶고 아니고 떠나서
PhD를 할 수 있는 능력부터가 안됨.
그래서 나에게는 선택할 옵션이었던 적이 없다.
당연히 이 바보를 누가 시켜준다고도 한적 없다.
PhD를 위에 언급한 유일한 이유는
다른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선택지여서
일뿐이지, 나 자신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나는 스위스에 올때부터 현재까지
취업을 해야겠다는 목적자체를
여태까지 가진적이 없어서 정보가 0이었다.
원래 어떤거든 목적을 세우고 하는 성향이 아님.
▼내 최초 유학개시글을 보면 알수있다▼

ed to offer

직장인 유학가기

[나는 대기업 7년차 직장인이다. 2013년 25살에 취업을 해서 쭉 한 회사를 다녔는데 2020년 현재 32살이 되...](#)

[blog.naver.com](#)

학교 따라가기도 벅찬 마당에 이를 뛰어넘는
뭔가를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기도하다.
하지만 춤은 열심히 시간내서 추고^^

게다가 나의 현재의 계획은,
내 장기휴직(5년)이 끝나는 내년 8월에
한국에 일단 돌아가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여전히 고민중이나, 당장은 이러한 생각이다.
다만 아직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있으니 최대한
스위스 회사에서 NLP업무 경력을 쌓으려한다.

너무 이렇게 뭘 알아볼 곳이 없다보니,
Non-EU 학생들 커뮤니티로는 최대규모인
친한 중국인 친구들한테도 수소문을 했다.
특히, 독일어 못하고 - 해외취업경험 전무한
나처럼 맨땅해딩한 사람을 좀 알고 싶었으나
불가능하길래 범위를 늘려도 없었음.
당연히 ETH까지 포함해서 알아봤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서로의 뉴스도 잘 알고있어서
내가 모르는 Non-EU들 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장점
그들 또한 회사 취업 케이스가 너무 적고
PhD는 상대적으로 정말 많다고 했다.
또한 현재 석사를 하는 친구들에게
어떤 진로로 갈건지 물어봐도
전부 PhD를 희망했고(Y1, H, J, R... 셀수없다)
회사에 취업해본다는 친구는 없었다.
여기서 좀 '나 혼자 이상한한 생각을 하는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스스로를 강제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T(중국인)은 RA로 ETH에서 일하는 중인데,
자기는 솔직히 말해서 한명도 못봤다고 했다.
Y2(중국인)은 ETH 졸업 후 회사취업 케이스라
그나마 내가 기댈 곳이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스위스에 무조건 회사취업으로 정착을 하고 싶어
1.5년을 구직하고 이민국이 계속 쫓아낸다고
협박해서 고생하다 자기 마음에 1도 안드는
극소기업에 전공을 못 살리고 겨우 취업한 경우라
자기가 도움이 될만한 부분이 아닌것 같았다.
(Y2 스스로가 그렇게 말한 것일뿐, 나는 그래도 대단하다
똑똑하다 생각하고, 여전히 내가 맨날 가서 물어본다)
그외에 A(베트남인)은 ETH졸업을 했지만
1년간의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본국에 돌아갔다.
나는 이 때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Y2가 말하기를 자기 중국인 친구들도
계속 해도 안되어서 자국 돌아간 친구들
셀 수 없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줘서,
아, 구직에 실패하고 본국에 돌아가는게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었다.
H(중국인)는 회사취업을 원하는 케이스라
내가 취업한 이야기를 안했다(기분에 영향갈까봐)
근데 다른 친구(Y1)에게 전해듣고 연락이 옴.
다행히 내가 생각한 반응은 아니었어서
간략하게 얘기했더니 구체적으로 좀 말해달라고
채용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된건지
그리고 차후 일시작하고나서도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다.
자기 주변에 아무도 그런 케이스가 없어서
고생하는 중국인 친구들한테도
이게 되기는 된다라고 공유해주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나처럼 바보라도 되기도 한다고
정정해달라고 부탁했다ㅋㅋㅋㅋ

이렇게 갑자기 짧은 시간내에 딱히
긍정적이라고 할수없는 정보들을 많이 얻었다.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면서 좋은 결과도 있었다.
교수님의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난 가만히 있었는데 교수님이 먼저 나에게
오셔서 갑자기 써주신건 절대 아니다ㅋㅋ

내가 금년 2월 석사논문주제를 정할때였다.
논문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 이벤트,
교수님들의 오픈된 연구분야, 현재 학교의

주요 아카데미 토픽을 전부 다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주제로 무조건 해야지!
생각하고 K-pop관련 NLP로 주제를 정했다.
결과가 학문적 가치를 인정을 받든지 말든지
내가 알바 아님. 난 그냥 과정이 즐겁길
바랬으며, 여태까지 충분히 재밌다.

그리고 초안을 신나게 만들어가서
토픽과 방법론, 방향성에 대해 내가 찍어놓은
교수님 앞에서 즐겁게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교수님도 K-pop 먹는건가? 어....오.... 눈치였으나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서 난 당당했다.

교수님도 이미 이 상황에서 눈치를 쳤다.
- 이 아색기는 아카데믹 쪽은 관심이 1도 없다. -

그리고 갑자기 이야기 주제를 바꾸시더니
나에게 향후 진로를 물어보셨다.
내가 회사취업을 생각하고 있단걸 들으시고
교수님쪽에서 감사하게도 먼저 대뜸
"내가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제안해주셨다.
이래야 내가 Kpop 얘기 그만할 것 같았나 봄
나는 애초에 그 이유로 방문한 것 자체가
아니다보니 적잖이 당황해서 "엇, 괜찮아요"
라고 또 멍청하게 대답해버림. 아나.
지가 뭐라고 거절함??? 망나니 초코빵 어이없음
그리고 그 이후 2-3주? 정도 지나서
겨스님 저번에 얘기해주신 추천서 필요해용...
하고 꿈지럭거리니 교수님이
어어 써놨어 읽어봐봐 너 맘에 드는지
하고 보내주심 ㅋㅋㅋ

평소에 성격도 좋고 눈에 띄어서 추천서를
먼저 써주시겠다 하신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그건 확실하게 아님.

이 교수님 과목들 다 좋은 성적을 받긴했다. 그건 당연...

교수님께서 직접 써주신 추천서를 받아보고서

내가 알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주제를 정해서 열정있게 밀고 나간게

하나의 이유였다는걸 알게됨.

해당 추천사 부분을 아래에 첨부한다.

From the very beginning of her Master's thesis planning, _____ was one of the few students who actually chooses a topic based on her own interest rather than asking for a pre-defined topic and applied her comprehensive knowledge gained from her university studies deeply into her chosen subject.

To summarise, I fully support _____'s application. If I had the opportunity to offer her a position, I would not hesitate to offer it to her.

지금 와보니 추천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다.

현재 회사에서도 최종합격후에

나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제출하라고

요구한 서류가 1)졸업장과 2)추천서였다.

아무튼 이 긴 글을 관통하는 요지는,

스위스가 Non-EU에게 매우 빽세므로

와서 고생하지 마세요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됐습니다 이런류가 아님.

저런 팩트들이 날 힘들게 하진 않았음.

뭐 사실이 저런걸 어쩌겠음? 불평거리가 안됨.

안되면 다른 길이 있다 생각하는 편이기도하고.

그냥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란 벽이 있다는걸

충분히 자세하게 공유하고 싶었다.

3편부터 면접과정이 등장합니다.

대기업 7년 직장인&휴직러,
스위스 취리히에서 힘겹게 석사유학중입니다.
하루의 1/3은 춤에 열정을 쏟고 있고,
나머지 1/3은 인생계획하기를 즐깁니다.

@ UZH Computational Linguistics

@ Kpop Dancer @Daze Crew

유튜브 youtube.com/@imyourbest

유학상담 blog.naver.com/imyourbest/222060601671

스위스 유학생 직장을 구하다(1)

스위스 직장생활

2024/05/02 16:00

<http://blog.naver.com/imyourbest/223433593373>

일단 마음이 힘들어서 글쓰기를 열었다.

그런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심란해하기보다는,
현재까지의 상황/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적고
각각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정리해서
정확하게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글을 쓴다.

또한, 나중에 쓰게되면 기억이 희석되어서
구체적으로 쓸수가 없어서 지금 남긴다.
나의 라이프로그 = 블로그니까.

쓰다보니까 말이 너무 많은 나라서
총 10편짜리의 장편 시리즈가 되버렸다.

아주 간략한 상황은 이렇다.

아직 졸업 전 석사생신분으로 취리히의 한
금융회사에 Working Student 포지션을 구했다.
부서는 Data Analytics이고,
내 타이틀은 Data scientist이며

구체적인 업무는 NLP이다.

즉, 내가 하는 전공과 100% 일치한다.

급여는 아, 스위스물가가 비싸니까.

하는 생각이 들만큼 준다.

더 구체적인건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등장할테니 끝까지 봐주시면 된다.

과정이 조금 다사다난했다. 덕분에 쓸말이 많다.

난 이번년도가 석사 마지막 연도라 2월부터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 (전공 수업은 다 끝냈고,

부전공 수업만 듣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공부랑 병행하는 Working student

포지션을 같이 알아보기 시작했다.

졸업 후 적절한 Full-time position을 구하려면

업무경력이 좀 있으면 좋겠지, 하는 목적도

있었긴 했지만, 그건 초반엔 매우 미세했다.

그것보다도, 현재 내가 구직을 했을 때,

과연 내가 학교 밖의 사회로 나가서

쓸모있게 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인가?

즉, 회사 일자리를 얻을 수준인가? 가

무엇보다도 궁금했다. 그게 인정된다면 사실

나 그나마 무던히 해왔고 향후에도 잘될

잠재력이 있구나, 하고 심신의 큰 안정을

얻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게 진짜

유럽전역에서 와서 돈 벌고싶어하는

경쟁률 미친듯이 박터지는 스위스라면,

나중에 어딜가서도 잘할거라는게 보장되니까

그 '인정'을 받고 싶은게 가장 컸다.

(검색해보면 워킹스튜던트는 독일 예시만 많이 나온다)

스위스에서 정착을 하겠다!의 이유가 아니라,
여기서 취업이 된다면 어딜가도 된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있어서이다.

여태 금융/투자에서 IT로 뇌를 갈아 끼운
지난 3.5년간 이렇다할 '인정'의 기회가 없어서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수많은 고민이 있었다.
나는 인정을 먹고 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능력치가 딱히 좋지도 않고.
내 블로그 계속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솔직히 공부보다는... 그냥... 많이 놀음.
인생의 대열정(춤!)을
스위스에서 찾았는데 뭐, 말다했지.
좀 놀으려고 유학온것도 있긴 하니까 ㅋㅋ ㅋㅋ
게다가 그 놀은 내용을 글로 쓸 시간까지 많음.
유학온 이후의 포스팅만 세도 400개 넘는거 실화

그러다보니 개인적으로 발전을 하기는 한건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내 자신이 뭔가 주어지면
할 수는 있는건가?가 의문스러웠음.
아무튼 지난 3년 넘게 죽을 이리저리 썼으니
어떤 죽이 되었나 봐야되겠다 생각함

그런 저런 이유로 한번쯤
구직을 시도해봐야겠군. 싶었다.

학기 수업듣느라 들쑥날쑥하게 지원하다가
인터뷰 몇개 얻어걸리고, 실패하고,
시간되면 다시 지원해보고, 그러고 있었다.

이 회사가 원하는 해당 포지션의

workload는 처음부터 50%였다.

(Switzerland Job Market에는 다양한 workload가 있다.

100%는 풀타임, 20%는 주1일 근무, 50%는 주2.5일 근무,

...80%는 주4일 근무식이다.)

그런데 나같은 Non-EU학생은 법적으로 학기중

주 15시간(약 40%)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다.

방학중에는 100%까지 일할 수 있다.

(Swiss local이나 EU 학생은 이런 제한이 없다)

나는 회사가 원하는 workload랑 안 맞는걸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 지원했다...

(이 이야기는 5편에 재등장예정이다)

2편에 이어집니다.

대기업 7년 직장인&휴직러,

스위스 취리히에서 힘겹게 석사유학중입니다.

하루의 1/3은 춤에 열정을 쏟고 있고,

나머지 1/3은 인생계획하기를 즐깁니다.

@ UZH Computational Linguistics

@ Kpop Dancer @Daze Crew

유튜브 youtube.com/@imyourbest

유학상담 blog.naver.com/imyourbest/222060601671